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spiration,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조혜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

지도교수 정 철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조 혜 은

조혜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이 칸 (인)

부 위 원 장 정 철영 (인)

위 원 김 진 모 (인)

국문초록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조 혜 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 모형의 인과적 경로에서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11개 학교에 500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수집결과 492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거하여 최종 469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 for Window와 AMOS 21.0 프로그램을 통계적 유의수준 $P < 0.5$ 로 설정하여 처리하였고,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방법과 팬텀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론은 첫째,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부모나 교사지지는 중요한 선행변인이지만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매커니즘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진로포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과 학교차원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포부 발달의 경로를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모지지가 자녀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정보수집, 목표설정의 과정을 돕는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완전매개 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위해 교사지지가 학생의 진로고민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최대한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진로포부 발달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을 나누고,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집단별 구조적 차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진로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역량의 전문성을 분석 및 측정하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적합한 진로포부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포부 측정도구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선행변인(독립변인)과 결과변인들을 추가하여, 일반

계 고등학생에 적합한 진로 및 학습의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형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이 졸업 후 진로선택의 결과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구조적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장기적인 관점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학 번 : 2016-2898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 가설	6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1
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및 특성	11
2. 진로포부의 개념 및 측정	14
3. 진로포부 관련변인	29
4. 관련변인 간의 관계	48
III. 연구방법	61
1. 연구모형	61
2. 연구대상	62
3. 조사도구	65
4. 자료수집	72
5. 자료분석	73

IV. 연구결과 및 논의81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자료점검81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85
3. 최종 구조모형 선정90
4.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직접효과96
5.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98
6.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101
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103

V. 요약, 결론 및 제언113

1. 요약113
2. 결론116
3. 제언119

참고문헌123

[부 록]141

Abstract151

표 차 례

<표 II-1> 진로포부의 연대별 개념적 범위와 주요정의	17
<표 II-2> 진로포부 측정 선행연구	28
<표 II-3>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34
<표 II-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46
<표 II-5>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50
<표 II-6>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52
<표 II-7>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	53
<표 II-8>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54
<표 II-9>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57
<표 II-10>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60
<표 III-1>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성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61
<표 III-2> 연구의 표집	65
<표 III-3>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66
<표 III-4>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68
<표 III-5> 부모진로지지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69
<표 III-6> 교사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0
<표 III-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1
<표 III-8> 진로결과기대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72
<표 III-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3
<표 III-10> 연구문제별 분석방법	75
<표 III-11> 적합지수 해석기준	78

<표 IV-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81
<표 IV-2>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분석	83
<표 IV-3> 관찰변인간의 상관행렬	84
<표 IV-4> 측정모형의 적합도	86
<표 IV-5>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87
<표 IV-6>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간 추정된 상관계수	89
<표 IV-7> 구조모형의 적합도	90
<표 IV-8> 모형간 적합도 비교	92
<표 IV-9>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94
<표 IV-10>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간 경로계수	95
<표 IV-11> 부모진로지지, 진로포부 관계에서 매개효과 분석결과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	100
<표 IV-12> 교사지지, 진로포부 관계에서 매개효과 분석결과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	102

그 립 차 례

[그림 III-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61
[그림 III-2] 층화군집비율표집과정	64
[그림 IV-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8
[그림 IV-2] 변인 간 관계분석을 위한 최종 구조모형	93
[그림 IV-3] 최종 구조모형 내 변인 간 관계 검증결과	96
[그림 IV-4]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분석모형	9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요한 진로실태 특징 중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졸업이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국기준 2013년 77.7%, 2016년 78%이다. 하지만 높은 대학진학률과 달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2%는 전공선택이나 진로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해당조사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그림이 명료하지 못한 중·고등학생 81.9%로 보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청소년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리더십, 전문가,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진로포부의 발달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포부웨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포부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가장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경년, 2011; 김양분, 김위정, 임현정, 남궁지영, 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낮아진 배경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등의 제도적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유형 다양화 제도 도입과 함께 경쟁률이 치열한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에 입학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소재지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진로포부의 하위개념인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된다(황지원, 2013). 발달되지 않은 진로포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능점수에 맞춰 대학에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교육

중단을 하는 결과로 연결되며, 이는 대학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함에 따라 낮은 연봉과 직무불만족 등 조기퇴사의 원인이 된다.

고등학교 시기 형성된 진로포부는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5-10년 후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성인기 삶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직업이나 진로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이나 목표에 대한 기대감인 진로포부를 갖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도록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중요하다.

2018년 일반계 고등학교는 문·이과 통합에 따라 교육제도와 운영방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중심의 학교 수업시수 배정 및 교과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상담 교사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진로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 박나실, 2017).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일반계 고등학생은 대학입학만이 학교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목표를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준비단계로 진로포부 발달의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간의 연구와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진로교육방법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고등학교 계열 구분 없이 고등학교의 일부분으로 파악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김경주, 송병국, 2011; 김명희, 최웅용, 2014).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설립취지에 차이가 있으며, 대학진학이란 비슷한 목표를 가졌지만, 특수한 분야의 전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목고와

교육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설립취지, 학교별 운영방식의 차이는 고등학교 계열별로 제공하는 환경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계열에 따른 학생의 진로포부, 즉 자신의 진로의 방향성, 직업적 성취나 목표를 정할 때 영향을 주는 변인과 진로선택 과정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로포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학교계열이 진로포부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안영은, 박세진, 2017). 따라서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포부 발달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포부 발달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포부의 발달과정은 사회인진로이론과 진로포부이론을 기반으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진로포부 발달과 관련된 변인과의 선행연구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관계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기존연구는 진로포부에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 유형, 성별, 거주지, 학년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진로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다(강경찬, 1996; 김대연, 강경찬, 1996; 박은혜, 2006; 양난미, 2008; 정지혜, 2006; Lent & Hackett, 2000; O'brien, 1996). 하지만 최재혁, 홍혜영(2016)의 진로포부를 주제로 수행한 메타 연구결과, 진로포부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서적 지지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과 학교, 가정이 함께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맥락적 변인들과 진로포부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고등학생 단계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포부를 형성해가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진로포부 장벽요인보다는 진로포부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변인에 주목하고, 정서적 지지변인(학교 및 가정측면), 사회심리적 변인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학생의 정서적 지지변인으로 부모와 교사지지는 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지지원이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학생의 관계, 부모지지 등 진로포부와 영항연구는 다수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구체적 과업으로 부모의 진로지원에 주목하였고, 부모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에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하며,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 진로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선택에 있어 학교변인의 요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유의미한 타자인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김경주, 송병국, 2011; 최재혁, 홍혜영, 2016). 학교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민중, 2016; 정지혜, 2006).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교사가 학생에 갖는 열의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다(안영은, 박세진, 2017). 교사의 지지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인지적 기제와 상호작용하여 진로포부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로포부와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관관계 및 매개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다(김경주, 송병국, 2011; 최수미, 2013).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맥락적 지지변인과 사회인지적 기제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의 진로포부와 관계와 각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진로포부 발달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잠재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사회인지진로이

론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론의 구조가 유효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구축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실천적 진로개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구명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교사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진로포부

진로포부는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된 진로와 관련된 열망과 기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포부는 목표로 정의되기도 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로부터 도출된 직업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는 직업목표를 포함한 진로와 관련된 목표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신념이자 선택한 진로에서 얼마나 리더십, 교육, 성취와 성공을 열망하는가로 정의한다. O'Brien(1992) 개발하고 최수옥(2003)이 번안한 척도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부모진로지지

부모지지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 부모진로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자 제공하는 긍정적 자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즉, 자녀들이 진로발달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환경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다. 부모진로지지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하여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 진로 관련 의지 및 목표형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지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 속에서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한다. 하위요인으로 도구적조력, 진로관련모델링, 언어적격려, 정서적지지로 구성하였다. Turner(2003)가 고안하고 김수리(2004)가 번안한 척도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교사지지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환경도 되고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도 된다. 교사지지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단순한 감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과 원조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자원을 교사지지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로 구성하였다. 박지민(2000)이 타당화한 척도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자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etz, Klein, & Taylor, 1996).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목표설정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하고 김경주(2011)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진로결과기대

진로결과기대는 자신의 능력이나 진로에 대해 형성된 신념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진로선택도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은 내재적 결과기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하였으며, Lent(2013)가 개발하고, 박용진(2019)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적용한 척도에 학생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및 특성

가.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발달

생애주기진로발달이론은 진로선택과정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청소년 진로발달 단계에 대해 설명하는 Super(1953)의 진로발달의 이론은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Super(1984)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를 심리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맥락, 직업발달의 구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며, 전 생애적 측면에서 진로가 발달한다고 제시한다. 진로발달은 자기개념의 발달이며, 개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마주하는 의사결정의 축적된 결과로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는 진로선택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Super는 자아개념이 5단계로 발달한다고 하며, 각 단계에 맞는 과업을 제시하였다. 5단계는 자아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이 있으며 요구되는 과업을 완수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고등학생 시기는 5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며, 인지, 신체적 측면에서 변화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탐색기의 발달과업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업이다. 즉, 성인기의 목표 수립이 중요한 자아개념 발달의 과업이며 이는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은 진로발달론적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모두 중시하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성숙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그는 14세 이상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타협단계로 제시하였고, 인지발달측면에서 삶의 목표와 자기개념을 규정하는

시기로 진로포부 발달을 강조하였다. 이 단계에서 한 개인이 수용가능한 직업의 목표탐색과 진로선택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고등학교 시기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청소년 진로발달이론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시기는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자아의 독립과 함께 자기의 성장과 발달에 집중되어 사회적 성격과 관계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진로발달 측면에서 진로선택을 위한 목표와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은 진로발달의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시기는 진로발달 측면에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시기로 일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의 진로포부에 맞는 진로분야와 대안을 고민하여 진로선택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때 고등학생 시기 진로포부는 올바른 진로발달과 성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등학생 시기는 현실 속에서 예측되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기대와 희망을 갖기도 하며, 현실에 제한과 타협을 통해 진로포부를 조정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발달 특성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실태와 진로발달의 중요한 특징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진로미결정수준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전국의 경우 2013년 77.7%, 2016년 78%이다.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2013년 59.4%, 2016년 61.2%로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17).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72%는 진로문제를 고민하거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제시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81.9%는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며 직업에 대한 그림이 명료하지 못한 청소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 학교급의 차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발달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 개인의 진로발달의 결과로 진로관련 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를 볼 수 있는데, 임언(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진로발달은 학교급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이 늦어지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수동적일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직업적 선호와 능력의 개념인 자기개념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 스스로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연결되며, 진로목표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되어, 청소년기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미결정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확신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특성상 문·이과 계열선택을 앞둔 혼란이나, 결정에서 혼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런 부분에서 진로탐색 행동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진로포부 발달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대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진로포부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최재혁, 홍혜영, 2016). 김수현(2016), 김경주, 송병국(2011)은 청소년들의 진로포부는 개인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의 진로선택을 명료하게 하며, 진로발달과 직업성공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며,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진로포부 발달에 관한 연구는 진로선택을 명확히 하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고등학생에게 이정표를 제공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연구에 집중되었다(길혜지, 윤지윤, 2015;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하지만 학교 계열의 차이를 반영한 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각 계열별로 제공하는 교육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원, 진로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진로포부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설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경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시기 자기정체성 발달을 통해 성인기 자신의 진로목표 수립을 돕는 진로포부 발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의 과정을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진로포부 발달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진로포부의 개념 및 측정

가. 진로포부의 개념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는 Gottfredson이 진로와 관련된 포부를 발달적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중요시 되었다.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는 진로와 관련된 열망으로, 자신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형성

되면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직업적 목표에서 성공 또는 성취를 얼마나 바라는가를 나타낸다(O' Brien & Gray,1996). 현재 진로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인식되거나 기대되는 교육수준, 직업지위, 리더십, 승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양난미, 2008), 자신의 진로분야에서 지도성을 발휘하거나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개인적 요인들로 정의한다(이정연, 2013; 최수옥, 2003)

진로포부는 시대에 따라 개념이 추가 확장되어 왔다. 1940년대 초등학생의 포부수준과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에서 포부수준(aspiration level)이 언급되었으며. 1960년대 직업포부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1980년대 Gottfredson(1981)이 진로발달적 관점에서 진로포부이론을 체계화하며 제한타협이론을 통해 진로포부가 발달하는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O'Brien(1996)이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라는 용어를 개념화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로포부이론에 대표적인 학자인 Gottfredson(1981)은 특정시점에서 개인이 가장 선호하고 바라는 직업을 직업포부로 바라보았다. 직업포부는 학생이 갖기를 열망하는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지위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ottfredson은 개인은 단계별로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달라지는 발달적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총 4단계로 제시하며 1단계는 자신의 힘 지향, 2단계는 성역할지향, 3단계는 사회적 가치 지향, 4단계는 내적이고 고유한 자기경향에 따라 알맞은 특정의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성과 사회적 계급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제시하였다.

Gottfredson(1996)의 연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적합성에 따른 개인과 환경적 열망, 직업선택의 산물로 진로포부 이론을 발전시켰다. Gottfredson은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인식하면서 진로대안들을 제한하고, 사회적 계층에 의해 스스로 가능한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은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등 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의해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Cranston과 Leonard(1990)는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에 교육포부를 추가시킴으로써 진로포부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Cranston과 Leonard에 의해 개발된 진로포부는 더욱 전통적인 직업과 명성이 적은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의 교육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O'Brien(1996)은 진로포부를 직업지위에 대한 가치판단 뿐 아니라 그들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승진, 전문가, 리더십과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즉, 이전의 진로포부는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 직업에 따른 지위수준에 초점을 둔 반면, O'Brien(1996)은 개인이 원하는 진로영역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O'Brien은 선택한 진로영역 안에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직업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나, 개인이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진로장벽에 대해 제시하였고, 여성의 진로포부가 남성과 다르게 발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고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구한 Schustack(2001)은 진로포부의 과정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신념의 통합체라고 제시하였다. 진로포부는 개인에 따라 독특하게 전개되므로 하나의 차원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양육과정과 개인적 민감한 특성을 바탕으로 인과적 관계에 의해 형성됨을 강조하다. 사회적인 명성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성취욕구와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을 의미하는 진로포부는 고등학생이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거나,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는 강경찬(1996)은 진로포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에 할 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지위를 정하는 것이라 하

였다. 최수옥(2003)은 생애발달론적 관점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진로경로에서의 성공과 성취의 바램정도라 하였다.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2009)는 진로포부는 진로의사결정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인 진로목표와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정의하였다.

김국현(2016)은 진로포부의 특징을 연대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고, 연구자는 2000년대 진로포부의 개념적 범위를 추가하여, 진로포부의 개념적 범위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II-1>로 제시하였다.

<표 II-1> 진로포부의 연대별 개념적 범위와 주요 정의

연대	개념적 범위	주요 정의
1980년대 이전	진로포부= 직업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특정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Gottfredson, 1981) • 진로포부는 직업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기회, 능력, 자원 등의 부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 이상적 포부와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Thomas, 1986)
1990년대 초	진로포부= 직업포부+ 교육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omas(1986)의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에 교육포부를 추가(Cranston & Leonard, 1990)
1990년대 말	진로포부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열마하는가 정도(O' Brien, 1992) • 직업지위에 대한 가치판단 뿐 아니라 그들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 리더십,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정도 (O' Brien, 1996)
2000년대	진로포부 (리더십, 교육, 전문가, 출세,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포부의 과정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신념의 통합체 (Schustack, 2001) •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진로경로에서의 성공과 성취의 바램 (최수옥, 2003) • 진로포부는 진로의사결정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인 진로목표와 이에 따른 기대감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 2009)

자료: 김국현. (2016).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학생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구성.

진로포부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진로포부가 갖는 개념상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진로포부는 제한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직업적 대안이며, 희망직업 또는 이에 따른 직업지위, 즉 직업포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포부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열망하는 직업에 대한 지위 수준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직업지위수준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진로포부는 직업선택 후 선택한 직업에서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 또 해당분야에서 출세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고자하는 신념의 총합이다. 청소년들이 가능한 크게 꿈을 꾸게 되어도 꿈이 실현 되려면, 꿈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부는 이상적인 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 자체가 갖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보다는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직업적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진로포부는 청소년들이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실행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를 통해, 진로포부는 직업적 선호와 진로선택의 측면에서는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 또한 개인적 신념이라는 점에서는 직업지위, 출세와 영향력이 반영되며 성장하고자 교육을 받는 포부들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로포부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직업적 목표를 반영하며, 자신이 바라는 직업적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포부 개념을 진로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진로와 직업적 목표에 대한 기대감이자 선택한 진로에서 성취와 성공을 얼마나 열망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나. 진로포부 관련 이론

1)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기존의 이론들이 개인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두었던 진로이론과 달리,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들과의 내적요인과의 영향관계로 이론을 확장시켰다. 사회인지이론은 진로선택과 발달과정에서 목표성취와 성공, 만족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이 등장할 때 소수자였던 여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성, 인종,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맥락적 특성과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선택에 정적이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면서 이론적 범위를 확장시켰다(김봉환 외,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하여, 직업흥미발달, 진로선택과정, 진로목표수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초기에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목표의 세 가지 사회인지적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창자들은 새로운 사회인지적 개념을 중심으로 전통적 진로이론을 통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안한 개념 외에도 다양한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포괄하여 각 변인의 영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한 4가지 변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맥락변인이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며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둘째, 결과기대는 자신의 선택한 행동의 산물로 따라오는 성취에 대한 결과기대를 말한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결과기대가 진로선택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andura, 1986). 예를 들어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고 행위

가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개인 스스로 성취에 대해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 돌아올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결과기대는 여러 진로 대안을 비교하는 의사결정시, 각 대안으로 결정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다수 활용된다.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중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한 수행의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 시 결과를 보장해 주는 상황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주된 원인이 되나, 성공적인 수행의 질이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결과기대가 동기와 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Bandura, 1986).

셋째,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성취하겠다는 결심이다(Bandura, 1986). 목표는 자신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조절기제 역할을 하며, 개인은 목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구조화하고, 실행하며, 촉진제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행동을 지속하고,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진로목표는 진로계획,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 진로선택과정 등이 모두 목표에 해당하며, 사회인지이론에서 목표는 진로포부로 대체되어 설명되기도 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넷째, 사회인지이론에서 환경관련변인은 근접맥락변인과 배경맥락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 개인은 근접맥락변인으로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사람과 경제적 상황을 마주하며, 배경맥락으로 사회계층 및 성, 인종에 따른 차별, 거시적 경제 환경과 같은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의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근접맥락변인에 의해 개인은 가족, 사회, 문화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근접맥락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라오는 기대감을 갖게 되며, 개인은 직업적 흥미를 형성한다. 배경적 맥락요인은 비교적 진로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로장벽은 이러한 근접맥락변인과 배경맥락에서 진로포부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이 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론적 모형으로 흥미모형, 선택모형, 만족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흥미모형은 개인의 진로 관련한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예측된다는 모형이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흥미에 영향을 미치며, 흥미는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목표는 행동의 선택 및 실행을 가져와 수행결과로 연결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와 학업과 관련된 선택과정에서의 모형은 진로선택모형으로 설명해준다.

선택모형은 흥미발달모형에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에 따라 나눈 차이점이 있다. 개인의 진로선택과정을 진로와 관련된 목표의 선택, 선택의 실행, 수행에 의한 성취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이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Lent와 Brown(2008, 2013)은 근접맥락요인이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목표와 행동,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근접맥락요인의 진로발달에 대한 영향에 있어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제안된 자기조절기제의 매개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ndura는 환경맥락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조절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Lent와 Brown(2008)이 제시한 모형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만족모형이다. 만족모형은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소인 삶의 만족과 진로만족을 포함시켜 사회인지요인이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모형과의 차이점은 환경적지지, 자원, 장벽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를 통해 목표지향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만족모형이 진로교육 및 상담에 주는 의의는 개인의 잠재적으로 유연한 특성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를 활용하여 개인의 만족을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환경인 지지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개입을 활용하여 개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Lent & Brown,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 진로선택, 수행모형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포부이론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제한과 타협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환경 변인인 맥락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목표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뒤에 발전한 사회인지진로이론 만족모형은 환경적 장벽과 환경적 지지 변인이 직접적으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목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발달했다. 이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진로선택과 발달의 과정에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인지진로이론은 목표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진로포부가 발달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설정에 근거이론이 된다. 또한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 간 상호작용, 인지적 요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되며, 개인이 진로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제한-타협이론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포부는 자아개념과 직업선호도, 직업접근가능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제한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발달된다. 개인이 자신과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은 직업가치관 발달의 중요 요인이다(Gottfredson,1981).

Gottfredson(1981)은 자아개념의 발달을 진로문제 뿐 아니라, 권력, 성 역할, 명성 등과 연계하여 진로포부의 발달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관한 권력, 성 역할, 명성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지도라 하였고, 개인은 이 직업에 대한 인지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직업포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직업포부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때 중

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포부를 결정해가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Gottfredson(2002)은 제한과 타협의 두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는 진로포부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직업에 대해 특정한 결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문화, 차별, 노동시장, 타인과의 경쟁 등 외부세계의 영향 요소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환경과의 타협을 통해 진로포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진로포부이론에서 제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단계를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크기와 힘 지향(3-5세)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은 성별 또는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의 개념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성 역할 지향(6-8세)단계이다. 이 단계는 성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시기로 아동은 자신의 성이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 때 직업을 여자만 하는 직업과 남자만 하는 직업으로 이원화하여 분류하는 허용 가능한 성 유형 경계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지향(9-13세)단계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점점 더 또래를 의식하게 되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계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Gottfredson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업적 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 문화집단, 특정 직업 집단에 따라 명성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직업유형은 자신의 가족에게는 거절당하기가 쉽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은 ‘허용 가능한 경계수준(tolerable level boundary)’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내적 고유자아 지향(14세 이상)단계로 청소년은 자신의 직업적 대안 중 비교분석하며 자신이 접근하기 쉬운 것인 직업인지 탐색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가치, 가족의 기대와 요구 등에 대해 기준이 세워지면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단계를 통과한 청소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배제시키는 절충의 과정에 들어간다. 절충과정에서는 자신이 선호했던 직업적 대안들을 포기도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선호해온 직업이 관심의 초점이 되나, 교사, 부모, 친구, 등 주변의 조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절충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진로포부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무엇보다 사회계층맥락에서 더욱 영향을 받는다(Gottfredson, 2002).

반면, 진로포부발달을 자아개념의 구체화 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현실과의 타협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들도 있다. Ginzberg(1952)는 진로선택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교육수준, 환경의 영향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생긴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타협을 선택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본 Ginzberg는 진로선택의 과정을 환상기(6-10세)와 청소년기인 잠정기(11-17세)와 현실기(18-22세)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속하는 잠정기는 네 개의 하위 단계로 구분하였다. Ginzberg는 고등학교 단계를 전환기(17-18세)로 명명하였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선호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서 점차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요소들로 관심을 옮기게 되는 때이다. 또한, 늦어도 24세까지의 청소년 중기에 해당되는 현실기 단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진로선택이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취업기회, 직업요구조건, 교육기회, 사회적 위치, 연봉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면서 제한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포부는 외적 가치에서 내적 가치로 옮겨지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로포부를 타협하고 발전시켜나간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포부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무엇보다도 사회계층의 맥락에서 더욱 영향을 받는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의 제한과 타협의 영향요인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 흥미, 가치, 자아개념에 적합한 진로포부가 발달 될 수 있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 진로포부의 측정

O'Brien(1992)은 기존의 진로포부 측정방법에 한계를 지적하며 진로포부 척도를 개발하였다. O'Brien(1992)은 여성의 진로선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포부를 새롭게 개념화 하였고, 여학생의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포부 척도인 CAS(Career Aspira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O'Brien은 연구를 통해 발전하고자하는 포부가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과 승진의 기회를 추구하며, 직업적 책임을 위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O'Brien은 진로포부를 리더십 지위를 향한 포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포부라고 정의하였다. 진로포부를 측정함에 있어 리더십 및 승진포부, 교육을 추구하는 주제로 구성하여 리더십과 성취포부, 교육포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진로포부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진로포부 척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가진 특성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기존 척도는 리더십과 성취포부가 하나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더십 포부나 교육 포부 없이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는 성취 포부를 가진 개인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었다(Gregor & O'Brien, 2016). McClelland의 성취동기 이론을 근거로 성취포부는 리더십 포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리더십과 성취 포부를 분리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진로포부 척도를 수정하였다(Gregor & O'Brien, 2016). 진로포부척도의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요인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Brien 외(2016)가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형진로포부도구(Korean Career Aspiration Scale-Revised)를 개발하였다. 신뢰도와 요인구조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4문항의 3요인 모형은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역산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에서의 3요인 구조모형 적합도는 24문항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보다 더 나은 모형적합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해당 척도는 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척도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발달 같은 척도를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해당도구로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계진아, 2017).

국내에서는 O'Brien(1992)의 척도를 최수욱(2003)번안하여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남녀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뢰도 .70이상으로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별로 O'Brien(1992)의 척도를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여 타당화하여 사용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CAS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김정주, 송병국(2011)의 척도가 있다. 김정주, 송병국(2011)의 진로포부 척도는 O'Brien의 진로포부 척도를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고, 하위요인으로 리더십, 전문가, 승진, 교육포부가 하위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리더십,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묻는 척도의 타당화에 있어 신뢰도 지수가 .51, .58로 하위요인 측정에 있어 신뢰성의 제약이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맞게 성공과 성취를 소망하는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번안한 이정연(2013)의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남, 여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신뢰도는 .88이다. 진로포부의 하위요인으로 출세추구, 영향력 추구로 구성되어 있다(신상인, 2015).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리더포부와 노력포부로 설문을 수행한 양난미, 이은경(2008)의 연구가 있으며, O'Brien의 진로포부 총 10문항 중 연구에서 신뢰

도가 낮게 나온 3개 문항을 제거해 7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한 이정민, 정혜원(2015)의 연구가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Ⅱ-2>와 같이 종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O'Brien(1992)의 척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조사도구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대상이란 점과 남, 여 학생 모두에게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도구 중 신뢰도에서 .74이상인 최수옥(2003)의 도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난미(2008), 박희연, 이지연, 장진이(2013)를 통해 검증된 도구를 선정하였다.

〈표 II -2〉 진로포부 측정 선행연구

연구자	하위요인	응답자
O' Brien(1992) 최수욱(2003) 이정연(2013) 신상인(2015)	출세추구 영향력추구	남 · 여 고등학생
O' Brien(1992) 김경주, 송병국(2011)	리더십 전문가 승진 교육포부	남 · 여 고등학생
O' Brien(1992) 최수욱(2003) 고미나(2011) 양난미(2008) 박희현, 이지연, 장진아(2013)	진로포부	중학생 남 · 여 고등학생 여대생
O' Brien(1992) 양난미, 이은경 (2008) 이정민, 정혜원 (2015)	리더포부 노력포부	중학생
O'Brien(1996)	리더십 및 성취포부 교육포부	여고생, 여대생
O'Brien(1996) 박현옥, 강혜영 (2011) 양난미, 이은경 (2008)	리더십 및 성취포부 교육포부	초등학생
Gregor & O'Brien (2016)	성취포부 리더십 교육포부	남 · 여 대학생
Yong Hwa Kim과 Karen M. O'Brien, Hana Kim(2016) 한국형진로포부(K-CASR)	성취포부 리더십 교육포부	여대생
계진아(2017)	성취포부 리더십포부 교육포부	남 · 여 대학생

3. 진로포부 관련 변인

가. 진로포부 관련변인에 대한 고찰

진로포부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포부에 있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은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Gottfredson, 1981; O'brien, 1996). 이는 각 사회계층은 개인의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태도가 다르며, 자녀의 진학과 직업선택에도 반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특유의 사회 계층적 배경 보다 청소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선택과 직업적 성취가 외적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 즉 욕구나 포부, 강화(부모의 양육 태도나 교사, 동료의 격려)와 같은 내적요인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포부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진로포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경주, 송병국, 2011).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첫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크게 학년, 성별, 거주지, 계열별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경찬, 1996; 김국현, 2016; 박은혜, 2006;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O'brien, 1996).

이성식, 정철영(2007)은 도시지역거주가 높은 수준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 읍면 이하 지역의 고등학생은 높은 수준의 직업포부를 갖는 경향이 가장 약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2012)의 연

구에서 학교와 관련된 변인은 해외의 선행연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학교계열이 미치는 효과는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학교소재지는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급이 올라갈수록 남·여 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에 대한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진로포부 수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확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특성상 문과, 이과 계열선택을 앞둔 혼란이나, 결정에서 혼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런 부분에서 진로탐색행동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계열에 따라 진로포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었다(이병임, 2012;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이병임(2012)의 연구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진로포부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행복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계열에 따라 진로포부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최근 진로포부 수준의 격차가 특성화고, 특목고에 비해 일반계고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계열에 따라 진로포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별은 진로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직업 지위, 리더십, 성공,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열망과 포부로 볼 수 있는데, 성별에 관한 진로포부 연구는 직업지위와 직업포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Gottfredson(1981)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성역할은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았다. Sellers와 Comas(1999)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Creed, Patton과 Prideaux(2007)는

남학생이 전문적 직업에 대한 포부를, 여학생은 준전문가 직업에 대한 포부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Howard 외(2011)는 남성과 여성의 선호직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경우 배우, 패션디자이너, 초등학교 교사 등을 선호직업으로 보고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운동선수, 건축가, 경찰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선호직업으로 보고하였다. Howard 외(2011)는 직업선호에 있어 성차가 존재함을 밝히며, 이는 사회배경과 가족, 친구들의 기대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희망직업의 지위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공윤정, 2011; 유홍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 2013; 하문선, 김지현, 김봉환, 2014). Sikora와 Saha(2013)는 여성의 직업포부가 남성의 직업포부 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중간수준의 직업 지위를 더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직업지위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높은 직업포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직업적인 제한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과 직업에 대한 기대를 좁혀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hl & Blackhurst, 2000).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특성 변인, 즉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성숙도,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김경주, 송병국, 2011; 정우현, 1988; 최수미, 2013).

첫째, 최재혁, 홍혜영(2016)의 진로포부에 관한 메타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가장 효과가 큰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최재혁,

홍혜영,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미나(2011) 및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2001)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진로포부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즉, 자신 스스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수준이 높을 때, 진로포부의 수준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관련변인으로 학업적 효능감은 중간정도의 크기를 미쳤다. 또한 학업성취는 전 영역에서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76%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포부와 교육포부를 함께 연구되어진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에 비해 학업성취도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수목적고에 비교하였을 때 교육포부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김경주, 송병국(2011)는 고등학생 대상 진로포부 연구에 따라 빈곤계층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업적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진로포부에 차이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육격차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로포부의 제한요소에 대해 진로개입측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김경주, 송병국, 2011; 안영은, 박세진, 2017).

세 번째로 진로결과기대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로결과기대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될 기대를 말한다. 진로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행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선택이 학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선택 과정이나, 개인의 학업성취, 직업흥미 등과 함께 연구가 되었다. Brown과 Lent(1989)는 결과기대 변인은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중위권 학생의 학업적 성취나 성공과 영향

관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학업성적과 학문 지속성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함께 다수의 연구에서는 진로결과기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결과기대는 변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로발달연구에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3) 환경적 요인

진로포부에 있어서 환경적변인은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하며,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태도, 가정유형과 같은 가정변인과 교사, 친구와 같은 유의미 타자, 진로선택에 있어 제한을 주는 성별, 인종차별 등과 같은 진로장벽이 되는 환경적 제약 요인으로 구성된다,

진로포부와 교육적·직업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Wisconsin Model에서는 진로포부를 중요한 타인 및 학업수행과 함께 교육적·직업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현주, 2005). 선행연구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개인에게 주는 개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은 가정, 학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김경주, 송병국, 2011; 박외자, 2010; 이현주, 2005). 가정 환경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수입에 따른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에 가정과 사회 환경의 중요변인으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역할모델, 사회적지지를 변인으로 진로포부와 관계를 보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사회적지

지와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김경주, 송병국, 2011; 최재혁, 홍혜영, 2016).

국외 사례에서 살펴보면 Ma와 Yeh(2010)는 미국 내 중국이민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관련 부모의 지지가 직업적·교육적 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ole 외(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지지가 자녀의 직업적 지위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nt, Brown과 Hackett(2000)이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은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그들의 흥미, 진로관련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진로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환경적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점차 환경적 변인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주, 송병국, 2011).

4) 선행연구 종합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개인·환경적 요인들을 요약하여 제시해 보면, <표 II-3>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II-3>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하위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나이, 성별, 거주지, 계열
심리적 요인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업성취, 진로성숙, 성역할 정체성, 진로결과기대
환경적 요인	가정환경	사회, 경제적 배경(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수입), 가정유형, 양육태도, 부모지지, 부모진로지지
	사회환경	교사지지, 또래지지, 역할모델, 사회적지지

자료: 김경주.(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분석.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구성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진로포부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개인 및 환경변인(부모의 직업, 수입, 부모의 교육수준, 거주지, 계열, 성별, 나이), 개인과 주변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변인(사회적지지, 역할모델, 양육태도)로 나누어진다. 또한 학업특성변인(학업성취도)과 진로심리변인(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등)으로 나누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지지변인, 인지적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이론이 여전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설명하는데 유효한지 실증하는데 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정, 학교, 개인이 노력하여 변화할 수 있는 변인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현실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잠재적 변인으로 선택한 구체적인 잠재변인은 부모, 교사의 지지변인과 사회인지적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선정하였고, 각 잠재변인과 진로포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부모진로지지 개념과 측정

1) 부모진로지지의 개념

청소년들의 진로포부이론에 따르면 진로포부는 부모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대한 안정된 애착형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또한 청소년기 가정은 부모, 형제, 자매와 관계를 형성하며 심리적 안정감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며,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지지는 일반적으로 사

회적지지에서 발전했다(최옥순, 2015). Cobb(1976)는 사회적지지를 유의미한 타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 지지,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 평가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적 지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인간이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Cobb(1976)는 부모지지를 자녀가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신뢰하는 정보라고 정의하였으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부모지지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Lent 외(2000)의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적 지지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진로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 진로 관련 목표형성에 기여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예진희(2017)는 부모지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부모의 성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진로포부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동성인 어머니의 역할모델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이현주, 2005).

부모진로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자 제공하는 긍정적 자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즉, 자녀들이 진로발달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환경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다. 부모진로지지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매개로 노력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관련 목표형성에 기여한다(최수미, 2013).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자녀가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업수행시 안정감을 주며, 자녀의 유능감을 향상시켜 진로사고와 관련된

기능을 도와 진로준비과정을 순조롭게 한다(김수리, 이재창, 200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선택이나 진로목표선택의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가 높고 이에 따라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미한 타자로 보고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따라서 한국의 경우 특히 청소년 진로관련 연구에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김경주, 2011; 최수미, 2013; 최옥순 2015).

진로포부를 목표로 바라본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발달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적 변인을 진로지지와 진로장벽으로 구분한다. 진로지지와 진로장벽은 진로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차이가 있으며, 진로장벽에 비하여 진로지지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Lent & Brown, 2000). 또한 지지원에 따라 진로결정효능감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모지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미리, 2017).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 2000)에 의하면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적지지 요인은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경험을 통해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 진로의지, 진로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기에, 가족관계가 아동기부터 성인까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장기적인 진로발달과 진로관련 결정적 선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은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Brien, 1992).

즉 부모는 자녀에게 진로 관련 행동을 모델링해 주고 이와 함께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직·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관련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모진로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이자 제공하는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향상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중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부모진로지지를 주목하였으며, 부모진로지지 정도를 측정하여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진로지지의 측정

부모지지의 측정은 일반적인 사회적지지에서 하위요소로 측정하는 도구와 특정 과업에서의 부모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지지와 관련해서 개발된 도구들은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관점과 정의, 분류 및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사회적지지의 개념에서 지지 행동 유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지지를 다차원적 기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단일 차원의 접근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지지의 측정도구는 주로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발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박지원은 사회적지지 척도를 개념화 및 구조화하였고, 사회적지지만 개념 차원으로 사회적지지망, 지지형태, 지지 욕구란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상황에 대한 지지와 간접적인 지지, 직접적인 지지척도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간접적인 지지척도에 대해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가지 지지행위를 포함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간접적으로 인지한 지지척도(지지형태)로 4가지 지지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국내의 사회적지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박용진, 2019).

2000대 이후 부모가 자녀의 진로의사결정과 관여가 증가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가 간접,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과 관련된 측정을

하는 도구가 많아졌다. Turner(2003)가 제작한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4가지 기대원천을 반영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직업적 효능감 정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한다. 국내에서는 김수리(2004)가 변안한 척도가 있으며 ‘부모진로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이다.

해당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먼저, 도구적조력은 자녀가 진로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취득하는데 있어 부모의 지지를 의미하며, 진로모델링은 부모가 진로와 관련된 직업 및 직장경험 등을 통한 모델이 되어 진로 경험 제공을 해주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언어적격려는 청소년들의 경험하게 되는 교육이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수행과정에 있어 부모가 제공하는 칭찬과 격려를 의미한다. 정서적지지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육 및 직업적 발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지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부모가 진로에 대한 역할 모델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직업적 동기부여자의 역할과 직업정보자원, 진로발달환경의 제공자로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김수리, 2004).

이 도구는 취업 후 사용할 기술 등에 대해 부모가 가르쳐 주거나 지지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하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상황에 적용시키기에는 어색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언어적격려와 정서적지지에 포함관계가 불분명한 문항들도 존재한다(김영은, 2014).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진로영역에서의 지지를 보고자하며, Turner(2003)가 제작한 ‘부모진로지지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사용하였다.

다. 교사지지 개념과 측정

1) 교사지지 개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형식적 장면에서 주 업무인 교수를 담당하고, 비형식적 장면에서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의 생활지도, 생활태도, 친구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문화주도자이자, 학생에게 유의미한 타자로 보고된다(남부현, 오영훈, 2017).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환경도 되고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인성과 행동 특성에 따른 영향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포부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well, Hausler, Blau, & Ducan, 1992).

교사지지의 개념은 단일변인으로 사용되기보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소로 포함되거나, 교사지지와 유사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적지지의 하위개념으로 정의를 제시한 Cobb(1976)는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타인의 일부로 교사를 정의하였으며, 유의미한 타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지지,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 평가적지지,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적지지 등 세 가지 차원의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교사지지와 유사개념으로 교사리더십, 교사-학생의 관계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Forster(1997)는 교사리더십을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사의 헌신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철민과 김규태(2013)는 교사자신이 스스로 성찰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리더십을 인지적, 감성적,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로 보고, 이러한 관계가 학생의 학업동기, 행동, 학업수행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제시된다. 국외 연구로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Patrick & Kaplanl, 2009). 한국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이 학교에 형성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개념, 정신건강 등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광수, 2002).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사지지는 교사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교사-학생의 관계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관계를 사회적관계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단순한 감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과 원조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자원을 교사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교사지지의 개념을 사용하여, 교사지지가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사지지의 측정

교사지지척도는 별도의 단일 척도가 제작되기보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사회적지지 척도의 측정을 통해 교사지지 측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다차원 측면에서 측정하며,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은 척도이다. 하지만 도구개발의 사회적지지 형태와 효과에만 중심을 두고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이

일반객체로 되어 있어 교사지지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영자(1995)는 박지원(1985)과 윤혜정(1993)의 척도를 수정하여 지지원을 부, 모, 형제, 친구, 교사로 하고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Nolten(1994)이 청소년 대상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국내버전으로 번안하여 진로포부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활용한 이미라(2000)의 사회적지지 척도가 국내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미라(2000)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지지 척도와 유사하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를 분류하여 평가하도록 구성하여 각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원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지민(2000)은 Norris와 Murrell의 루이즈빌 사회적지지척도와 Barrera, Gottlieb, MOS(Medical Outcomes Study)팀 및 박지원(1985)이 제작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부모, 친구, 교사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지원이 제공하는 지지의 유형을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하위영역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윤여근(2002)이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지지의 하위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 등의 척도를 참고하여 박지민(2000)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타당화한 윤여근(2002)이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사회적지지 검사문항 중 교사지지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념과 측정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자신 스스로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Betz와 Hackett(1981)은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 착안해 진로와 직업 영역에 진로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진로에 관련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효능감 차이는 진로선택과 진로관련 결정 및 행동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일반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개인이 특정 진로영역에 대해 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성식과 정철영(2007)은 자신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 최화영(2015)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주로 진로탐색과정과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초창기에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을 성취행동, 진로결정,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발달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여 진로 결정과 학업성취, 진로결정, 진로행동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하였다(Lent, Brown, & Hackett, 1994).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성공적인 수행여부는 개인이 객관적

인 능력보다, 해당 과업을 스스로 잘 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대처해 가는 노력의 투입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결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피하여 진로결정을 지연 및 미결정의 상태로 둘 수 있다(공운정, 2011).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발달 및 행동의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학습경험을 하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나간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유능감 또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가 있다. Betz와 Klein, 그리고 Taylor(1996)은 CEMES를 간소화한 ‘CE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개발하였다.

CDMSES-SF는 CDMSES의 축소된 형태로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각 요인별 다섯 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욕구와 능력, 가치를 평가하여, 스스로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직업정보 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세부적인 입직 조건을 탐색하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계획

수립은 자신의 탐색하고자 하는 관련 진로분야의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목표설정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문제해결은 진로결정을 통한 결과로 오는 진로경험의 여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CDMSES-SF를 번안 및 도구 타당화 작업을 거쳐 구성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에,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은경(2001)은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타당화를 하였다. 연구자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다섯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평가를 제외해, 네 가지로 축소하였고,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김경주(2011)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가 있다. 한편, 김성희와 박명심(2006)은 진로발달단계와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한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였는데, 하위영역으로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수행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진로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을 종합하면 <표Ⅱ-4>과 같다. 학자마다 하위영역 구성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선택 모형을 기반으로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실정에 맞게 Betz(1983)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번안한 김경주(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II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연구자	하위요인
Talor & Betz(1983)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Betz, Klein, & Taylor(1996)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이기학, 이학주(2000)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이은경(2001)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김경주(2011)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박명심, 김성희(2006)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수행효능감

자료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재구성

마. 진로결과기대 개념과 측정

1) 진로결과기대의 개념

Bandura(1986)는 결과기대를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될 어떤 것에 대한 기대”로 개념화하였다. 즉 결과기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이 결과를 인지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진로발달과 관련된 장면에서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비교했을 때 진로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ent et al., 2000).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데 자기효능감과 흥미, 진로결과기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신념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맥락적 변인으로써 개인의 진로발달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2000). 즉, 진로결과기대는 자신의 능력이나 진로에 대해 형성된 신념에 따라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진로선택도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Lent et al., 2000).

새로운 사회인지진로이론 통합모형은 구체적으로 7개의 변인들, 즉 진로만족, 삶의 만족, 성격과 정서특질, 목표지향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근로조건 및 진로결과기대, 그리고 목표 및 효능감과 관련된 환경적 지지와 장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통합모형에서 결과기대 개념은 사람들이 실제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는 그리고 미래에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건과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Lent & Brown, 2008).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결과기대는 자신의 능력이나 진로에 대해 형성된 신념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진로선택도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2) 진로결과기대의 측정

진로결과기대의 측정도구는 Lent 외(2013)의 결과기대 측정도구와 Betz와Voyten(1997)의 진로결과기대척도(Career Decision-making Outcome Expectancies Scale: CDMOE)를 주로 사용된다.

먼저 Betz와 Voyten(1997)의 ‘진로결정결과기대척도’는 Betz와 Voyten(1997)은 Bandura(1981)의 개념정의에 기반하고, Lent 외(1994)의 연구 및 Fouad와 Smith(1996)의 연구로 타당화한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것이다. 결과기대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결과기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문적 결과기대와 결정결과기대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적 결과기대는 학업 수행

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결정결과기대는 진로결정 과제와 진로결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있다. 진로결과기대 척도는 학업결과기대 5문항과 결정결과기대 4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etz와 Vuyten(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3이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양난미(2006)의 연구에서는 .79이었다. 또한 양난미(2006)가 번안한 설문지를 김종민(2017)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두 번째로, Lent 외(2013)는 결과기대를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내재적 결과기대는 자신이 내린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자기만족적 자기평가 개념이며, 외재적 결과기대는 사회적 기대와 물질적 기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Lent 외(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관련 결과기대를 측정하기에 제한적인 영역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내재적 결과기대가 .93, 외재적 결과기대가 .85였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김진관(2014)의 연구에서는 각각 .92, .90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김진관(2014)의 도구를 박용진(2019)이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과기대의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Lent(2013)의 진로결과기대를 박용진(2019)이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 관련변인간의 관계

가. 변인 간의 관계

1)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진로포부의 발달을 설명하는 진로포부 발달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유의미한 타자인 부모의 지지는 진로포부와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미연, 2011; 정미예, 조남근,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역량의 하위요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진로지지의 도구조력, 진로모델링, 진로역량의 진로지식 순으로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문, 2018). 또한 Flores와 O' Brien(2002)의 연구는 부모진로지지가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혀냈고,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진로지지가 청소년들의 높은 진로포부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김상문, 2018; 최수미, 2013; 최수미, 강유림, 2013; 최재혁, 홍혜영, 2016).

박용두와 이기학(2008)은 사회적지지와 진로포부와 관계를 자존감이 매개하는지 효과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지지는 진로포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집단자존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은 유의미하다고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포부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직접적인 경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수미(201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진로포부에 직접영향은 없지만, 여학생은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 선택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규칙을 제공하는 등의 자녀의 학습방식의 존중과 더불어 학업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도우며, 자율적인 학습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진로포부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 -5〉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부모지지→진로포부	박미연(2011) 박용두, 이기학(2008) 정미예, 조남근(2011)	+ 여성 직접영향 남성 직접영향 X +
부모진로지지→진로포부	김상문(2018) 최수미(2013) 최수미, 강유림(2013) 최재혁, 홍혜영(2016) Flores& O' Brien(2002)	+ 여성 직접영향 남성 직접영향 X + + +

2)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진로포부 발달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 부모 외에 의미있는 타인의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 발달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정미예, 조남근, 2011).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원이다(김경주, 송병국, 2011; Lim, 1990).

진로포부와 교사지지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신효정, 최현주(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포부의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홍경희(2017)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요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의 격려가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김경주, 송병국(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취약계층일수록 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유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반해 사회·심리요인 중에서 교사영향은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하

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강경찬, 1996 ; 김경주, 송병국. 2011; 정우현, 1988).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로포부에 미치는 교사지지는 대상, 계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도 경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Wall, Covell & Macintyre(1999)는 Atlantic Canada의 15세-18세 남·여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교육·진로포부와 사회적지지의 관계 연구에서 청소년의 교육·진로포부에 대한 지각이 사회적지지에서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은 가족 보다는 교사나 동료의 지지 수준이 더 높았고,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미래에 높은 교육기회와 기대 그리고 더 높은 교육포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즉, 남학생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지각은 단지 가족지지와만 관련이 있었으며 반면, 여학생의 교육기회에 대한 지각은 가족, 교사, 동료의 지지 모두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남·여 학생 집단 모두에서 진로포부는 교육포부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all외(1999)의 연구도 교육포부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교육기회와 기대에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어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표 II -6〉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교사지지(사회적지지)→진로포부	김경주, 송병국(2011)	-(영향없음)
	정미예, 조남근(2011)	+
	유소영(2013)	+
	홍경희(2017)	+
	박용두, 이기학(2008)	집단간 차이 있음
	Wall, Covell & Macintyre(1999)	여학생 직접영향 남학생 직접영향 X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

진로포부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Hackett와 Betz(1983)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수행목표)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목표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제나 수행을 피하는 반면,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진로의사결정 과제와 행동을 자신감 있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저 수준의 효능)고 믿는 여성들은 진로동기만이 아니라 진로선택에도 제약을 받는다.

국내 연구에서 김경주, 송병국(2011), 김명희, 최응용(2014), 최재혁, 홍혜영(2016)의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II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포부	최재혁, 홍혜영(2016)	+
	김경주, 송병국(2011)	+
	김명희, 최응용(2014)	+

4)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진로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진로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진로선택에 있어 학업의 영향력이 중요하여 주로 학업성취, 직업흥미 등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가 수행 되었다.

결과기대변인의 개념을 적용하고, 연구를 수행한 Brown & Lent(1989)은 결과기대가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 보다 중위권 학생들의 학업성공을 더 잘 설명하며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학업성적과 학문지속성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진로결과기대는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ent & Brown, 1996, 2004). 진로결과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당면한 상황의 행동기준 간의 차이를 인지했을 때, 이러한 차이를 감소시키고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진로결과기대를 통해 진로목표가 생기면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목표를 조정하면서 스스로 진로결과기대를 조정하게 된다. 즉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관련한 목표와 이와 관련된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포부와 진로결과기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김명희, 최응용(2014), 이정애, 최응용(2011), 박외자(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과기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결과기대는 목표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목표는 진로포부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표 II -8〉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	김명희, 최응용(2014)	+
	박외자(2010)	+
	이정애, 최응용(2011)	+
	정미예, 조남근(2011)	+
	최재혁, 홍혜영(2016)	+
	Lent & Brown(1996, 2004)	+

5)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및 진로포부의 관계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환경맥락적 지지변인인 근접맥락변인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맥락변인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Lent & Brown, 2008, 2013).

본 연구는 첫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발달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판수, 2013); 정미예, 조남근, 2011; Lent & Brown, 1996). Bandura(1997)는 부모의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적 설득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다. 또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과기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부모지지를 맥락적 지지변인으로 하여 결과기대와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박용진(2019)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Gushue와 Whitson(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에서 부모지지는 결과기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예진희, 2017; 최수미, 2012, 2013; 최수미, 강유림, 2013). 이를 통해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해서는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Gainor와 Lent(1998)는 미국 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선택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밝혔다. 또한 Gushue와 Whitson(2006)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양난미(2006)가 진로선택모형을 기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진로에 대한 흥미와 목표의 관계에서 결과기대의 정적인 매개 효과를 밝혔다. 사회인지이론에서 목표는 진로포부가 목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3; Lent, Brown, & Hackett, 1994).

이에 따라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해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넷째,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포부간의 연구를 실증한 연구는 없지만, 유사연구와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각 예측변인

(부모진로지지)과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로 정미예, 조남근(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실증하였으며,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매개로 목표지향행동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목표지향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진로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박용진(2019)의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지지가 진로결과기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에 있어서 박용두와 이기학(2008)의 연구에 따라 진로포부의 형성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연구도 있었다. 남학생은 자존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학생은 사회적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일반계고 여고생에 대한 진로포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계진아, 2017, 김명희, 최웅용, 2013; 최수미, 2013). 이는 남녀성차가 있다는 전제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였지만, 남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통해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선행연구에 따라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표 II -9〉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부모진로지지(부모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김판수(2013) 장경아, 이지연(2014) 조명실(2007) Lent & Brown (2017)	+ + + +
부모지지(사회적지지)→ 진로결과기대	박용진(2019) 정미예, 조남근(2011) : 대학생 대상 Gushue & Whitson(2006)	-(영향없음)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과기대	김종민(2017) 김명희, 최응용(2014) 양난미(2006) Lent & Brown (2017)	+ + + +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예진희(2017) 최수미(2012, 2013) 최수미, 강유림(2013)	+ + +
부모지지→진로결과기대 →진로포부(목표)	양난미(2006) 전미리(2017)	+ +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목표(진로포부)	전미리(2017)	+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강경찬(1997) 최수미(2013)	남학생 완전매개 여학생 부분매개

6)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및 진로포부의 관계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의해 사회인지적기제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지지만을 별도로 수행한 연구는 드물지만, 사회적지지 척도에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를

하위요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장경아, 이지연, 2014; 조명실, 2007; 황현정, 백지연, 2015). 특히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지지원으로 볼 수 있다. 조명실 등(200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효진과 장운옥(2011)의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ushue & Whitson, 2006). 국내에서는 정미예와 조남근(2011)이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적지지(학교, 가족, 친구)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교사지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우현(1988)은 교사의 격려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주, 송병국(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주, 송병국(2011)은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며, 소외계층 고등학생일수록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거나 예측되는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Lent의 학업만족모형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윤혜경, 이지연(2014)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인 학

업적결과기대를 매개로 학업목표과정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정미예, 조남근(2011)은 환경적 지지와 목표지향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지지는 결과기대를 통해 목표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교사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해외사례와 국내사례에서 예측할 수 있다.

국외 사례로 Lent 등(2003)의 연구는 자기효능감, 대처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목표 등의 개인적 변인, 사회적지지와 장애와 같은 맥락변인들이 공학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맥락변인은 목표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의 58%를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지연, 양난미(2007),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사회적지지가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목표(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교사지지는 진로결과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의 관계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를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이를 실증하고자 한다.

〈표 II -10〉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의 관계

구분	선행연구	결과
교사지지(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김경주, 송병국(2011) 양난미, 이지연(2007) 장경아, 이지연(2014) 황현정, 백지연(2015) Gushue & Whitson(2006) Lent & Brown (2017)	 + + + + + +
교사지지(사회적지지)→ 진로결과기대	Gushue & Whitson(2006) 윤혜경, 이지연(2014)	 +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과기대	Lent & Brown (2017) 김종민(2017) 김명희, 최응용(2014) 양난미(2006)	 + + + +
교사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김경주, 송병국(2011) 유소영(2013)	 + +
사회적지지→진로결과기대 (학업적 결과기대)→학업목표과정	윤혜경, 이지연(2014)	 +
사회적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목표(진로포부)	이지연, 양난미(2007) Lent & Brown (2003, 2017)	 + +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Ⅲ-1]과 같다. 내생 잠재변인인 진로포부와 관련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를 외생잠재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잠재변인은 직접 측정할 수 없음에 따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각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을 설정하고 측정하였다. 부모진로지지는 도구적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격려, 정서적지지로, 교사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관찰변인으로, 진로결과기대는 외재적 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로포부는 단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조사된 일반계 고등학생의 총 재학생 수는 1,193,562명이 고(교육부, 2018), 지역별로 학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Ⅲ-1>과 같다.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수는 1,193,562이며, 수도권에 592,981명(49.6%), 비수도권에 600,581명(50.3%)으로 약 1:1.01의 비율을 보인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597,751명 여학생 595,811명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은 약 1:1.003의 비율을 보인다.

<표Ⅲ-1>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별, 성별 재학생 수(2017년 조사)

구분	학생 수(명)		
	남학생	여학생	계
수도권	303,638	289,343	592,981
비수도권	294,113	306,468	600,581
계	597,751	595,811	1,193,562

자료: 통계청, (2018). 교육통계연보.

나. 표집

1) 표집 크기

구조방정식의 적합한 표본크기를 구하기 위해 Joreskog와 Sorborn(1989)에 따르면 관찰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인 경우에는 $1.5q(q+1)$ (q 는 관찰변인의 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관찰

변인의 수는 15개이므로 적정한 표본의 크기는 360개이다. 또한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은 200개 이상 500개 이하의 표본이 사용될 것을 권장한다(김대업, 2008). 이에 따라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406개이나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 및 회수율, 이상치(outlier)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표집을 시행하였다.

2) 표집 방법

표집은 전국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표본의 대표성 및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군집비율표집은 특정 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군집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의 빈도에 따라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표본이 편중 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이훈영, 2008).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학교소재 지역, 학교성별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모집단 내에서 변인별 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학생 수에 따라 군집을 나누고,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18세인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점차 주관적인 요소에서 현실적이고 외적 요인들로 관심을 옮기게 되는 시기이며(Ginzberg, 1952), 진로포부는 학년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고등학교 대상 진로포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김경주, 송병국, 2011).

본 연구의 표집기간이 2019년 3~4월인 점을 고려하여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1학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

학년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으로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환경적 특수성과 설문지 수집의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표집과정은 <그림Ⅲ-2>와 같이 층화비율표집과정을 거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한 학생의 비율을 1: 1.01로 거의 동수비율인 것을 반영하여 <표Ⅲ-2>와 같이 수도권 250명, 비수도권 250명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남·여 모집단이 비율이 1:1.003으로 동수비율인 점을 반영하여, 남학생 250명, 여학생 250명을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Ⅲ -2] 층화군집비율표집과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소재 학생과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5개도의 소재지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학생 수 비율과 성별을 기준으로 표집을 실시하였고, 설문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온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Ⅲ-2〉 연구의 표집

구분	학생 수(명)		
	남학생	여학생	계
수도권	125	125	250
비수도권	125	125	250
계	250	250	500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한다. 질문지는 잠재변인으로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로 구성하였고, 모든 변인은 Likert척도를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학교소재지, 부모학력, 부모직업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 대상학교에서 110명을 선정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05부(95.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α)를 분석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99문항이며, 각 변인별 문항 수는 진로포부는 총 10문항, 부모진로지지는 총 27문항, 교사지지는 총 28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9문항, 진로결과기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학교소재지, 부모학력, 부모직업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3〉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구분	측정요소	문항수		문항번호	척도	연구자
진로포부	진로포부	10	10	I - 1~10	5점척도	O' Brien(1992) 최수욱(2003)
부모 진로지지	도구적조력	8	27	Ⅱ - 1~27	5점척도	Turner(2003) 김수리(2004)
	진로관련모델링	7				
	언어적격려	5				
	정서적지지	7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7	28	Ⅲ - 1~28	5점척도	박지민(2000) 윤여근(2002)
	정보적지지	7				
	평가적지지	7				
	도구적지지	7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목표설정	8	19	Ⅳ - 1~19	5점척도	Taylor&Betz (1983), 김경주(2011)
	미래계획	4				
	직업정보	3				
	문제해결	4				
진로결정 결과기대	내재적결과기대	7	12	Ⅴ - 1~12	5점척도	Lent(2013) 김진관(2014) 박용진(2019)
	외재적결과기대	5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교소재 지역, 성별, 부모학력	3	3	Ⅵ - 1~3	-	-
총계			99			

가. 진로포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O'Brien(1992)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에서 성취를 향한 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포부척도(CAS: The Career Aspiration Scale)검사를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번안한 이정연(2013)의 진로포부 도구를 사용하였다. O'Brien(1992)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진로포부척도(CAS: The Career Aspiration Scale)를 최수옥(2003)이 변안한 도구이다. 높은 진로포부 척도(CAS)점수는 자신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분야에서 더 높은 진로목표수준을 가지며,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O'Brien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76이었으며, 최수옥(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은 .74로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총합점수로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진로포부 측정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결과 .756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신뢰도 분석 후 문항제거 시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수정된 항목의 전체상관의 경우 문항3(-.132), 문항4(.301), 문항7(.213), 문항10(.286)으로 역 채점 문항 4개가 모두 .4이하로, 4개의 역채점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792로 문항 제거 전 .694에서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4문항을 제거하고 표준화 적재치(표준화회귀계수)가 0.5이상으로 확인되어 진로포부 문항 중 총 6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여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표 Ⅲ -4〉 진로포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내적일치도(chronbach' s Alpha)	
	예비조사(n=105)	본조사(n=469)
진로포부	.756	.792

나. 부모진로지지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로 잠재변인인 부모진로지지는 김수리(2004)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 척도는 Turner(2003) 등이 고안한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이다.

총 4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구적조력은 자녀의 진로관련 분야에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진로관련모델링은 부모가 자신의 직장생활 및 직업인의 모습을 행동으로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언어적 격려는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발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칭찬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서적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한 학습경험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결과 4개의 도구적조력 .679, 진로관련모델링 .897, 언어적격려 .688, 정서적지지 .885로 모든 항목이 .6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신뢰도 분석 후 문항제거 시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수정된 항목의 전체상관의 경우 도구적조력 항목의 문항1 ‘부모님은 내가 학교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신다’의 상관계수가 .378, 언어적 격려의 문항21 ‘부모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시는지 말씀하신다’의 상관계수가 .347로 나타나 2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 제거 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819에서 .821로 .750에서 .783으로 문항 제거전보다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부모진로지지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Ⅲ-5>와 같다.

<표Ⅲ-5> 부모진로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	내적일치도(chronbach' s Alpha)	
	예비조사(n=105)	본조사(n=469)
도구적조력	.679	.821
진로관련모델링	.897	.915
언어적격려	.688	.783
정서적지지	.885	.873

다. 교사지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박지민(2000)이 Norris와 Murrell의 루이즈빌 사회적지지척도와 Barrera, Gottlieb, MOS(Medical Outcomes Study)팀 및 박지원(1985), 한미현(1996) 등이 각각 제작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하고, 윤여근(2002)이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사회적지지 검사문항 중 교사지지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지지 하위요인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의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윤여근(2002)이 고등학생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지지의 하위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각 지지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8이상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정서적지지 .931, 정보적지지 .930, 평가적지지 .939, 도구적지지 .858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교사지지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교사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	내적일치도(chronbach' s Alpha)	
	예비조사(n=105)	본조사(n=469)
정서적지지	.939	.931
정보적지지	.948	.930
평가적지지	.945	.939
도구적지지	.878	.858

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고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SF)를 김경주(2011)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경주(2011)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4개의 요인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학 분야 교수 1명, 직업교육 분야 박사 2명, 고등학교 교사 3명, 고등학생 5명에게 안면타당도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총 4개의 하위요인은 목표설정,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 5개의 영역이며, 총 19개의 문항이 선정 및 구성되었다. ‘목표설정’은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방식에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계획’은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으며, 취업면접을 잘 볼 수 있으며,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한다. ‘직업정보’는 관심을 갖는 여러 전공들의 목록을 갖고 있으며,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나 회사를 알고 있으며, 흥미를 갖고 있는 여러 직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문제해결’은 처음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장을 바꿀 수 있으며, 만약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이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처음 선택한 직업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모두 .7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목표설정 .918, 미래계획 .843, 직업정보 .853, 도구적지지 .784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Ⅲ-7>과 같다.

<표Ⅲ-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	내적일치도(chronbach' s Alpha)	
	예비조사(n=105)	본조사(n=469)
목표설정	.902	.918
미래계획	.827	.843
직업정보	.842	.853
문제해결	.791	.784

마. 진로결과기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Lent 외(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관련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결과기대 도구이다. 하위구성요소로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김진관(2014)의 연구에서는 각각 .92, .90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김진관(2014)의 도구를 박용진(2019)이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Cronbach α)를 검증한 결과 하위요인 모두 .8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진로결과기대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내재적 결과기대 .932, 외재적 결과기대 .904로 모두 양호하였다. 진로결과기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Ⅲ-8>과 같다.

<표 Ⅲ-8> 진로결과기대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하위요인	내적일치도(chronbach' s Alpha)	
	예비조사(n=105)	본조사(n=469)
내재적 결과기대	.937	.932
외재적 결과기대	.891	.904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 2019년 3월 27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우편발송 전자우편 발송, 설문지 수거의 절차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학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본조사 대상학교 중 수도권 소재학교 1개교와 비수도권 소재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우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 한 후 본 조사에서는 목표 수집수를 500부로 하여 수도권 5개교(경기도 3개교, 서울 1개교, 인천 1개교), 비수도권 6개교(경상도 2개교, 전라도1개교, 강원도1개교, 충청도 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와 전화연락으로 사전 협조를 요청하였고, 협력교사 1인을 확보하고,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명이 포함된 협조문과 질문지, 사은품,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였다. 배포된 500부 중 49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8.4%).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이상치를 제외한 46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469부 중 남학생이 233명, 여학생이 236명이며, 수도권 230명, 비수도권 239명이었다. 최종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Ⅲ-9>와 같다.

<표Ⅲ-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학생 수(명)		
	남학생	여학생	계
수도권	109	121	230
비수도권	124	115	239
계	233	236	469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 for Window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설정하였던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과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p < .05$ 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 기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훈영, 2008).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 제시, 구조모형검증에 적합하며,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변수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입력 자료 준비, 2단계 측정모형 분석, 3단계 구조모형 분석의 절차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류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측정모형을 별도로 추정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Anderson & Gerbing, 198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평가한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 분석 단계를 취한다.

이상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제시하면 <표Ⅲ-10>와 같다.

〈표 Ⅲ -10〉 연구문제별 분석방법

구분	연구 문제	통계방법
기초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가설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모형적합도 검증
연구가설2	2-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대우도법
연구가설3	3-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텀변인 분석
연구가설4	4-1.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구조방정식 입력자료 준비

본 연구에서 적용할 최대우도 추정법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추정방법들은 이상치, 결측치, 다중공선성 등 데이터 분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결측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는 경우, 모수 추정을 위해 결측치는 행렬 계산 뿐 아니라 추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결측치 처리방법으로는 평균대체, 회귀대체, 기대최대화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만들고, 도출된 추정치로 대체하는 방법인 기대최대화법(Expectation-Maximization, EM)을 사용하였다.

둘째, 이상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보편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상치는 극단에 대한 어떠한 단일한 정의를 없지만 일반 규칙은 평균을 넘어 3 표준편차 이상의 값을 보이는 점수는 이상치라고 한다. 이상치 제거의 방법은 산포도를 통해 이상치를 확인하고, 이상치를 포함한 변수 및 사례를 제거하거나, 변수의 점수분포가 정상성을 따르도록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 제거를 위해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포도를 통해 제거하였고,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유의수준 $p < .001$ 통계치와 평균에서 표준편차 $|3|$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에서의 추정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한다. 구조방정식에서 관찰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이며, 선형적 결합을 위해 모든 단변량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야하며, 변수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결합분포는 이변량 정규성(선형성, 등분산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배병렬, 2011). 하지만, 모든 결합빈도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일변량 분포를 대신 주로 확인한다(배병렬, 2014). 일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산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왜도와 첨도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로써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 | 3 | 이내, 첨도 | 8.0 | 이내의 경우에는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사용되는 잠재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적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정된 측정모형이 각 잠재변인의 개념 측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를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를 통해 확인하고, 각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할만하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보기위해 관찰변인의 요인부하량 및 잠재변인 간의 추정된 상관을 통해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관찰변인간의 다중상관자승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다. 최종 구조모형 선택과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잠재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이 요구되나, 구조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모형식별(model identification)을 한다. 모형식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의미하거나 비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형식별은 이론적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매우 큰 표준오차로 이상계수가 나타나거나, 오차분산과 같은 부적 해가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 바람직한 추정치가 존재하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모형식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구조모형에서 이론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각 적합도지수와 적합도 판단기준은 <표Ⅲ-11>과 같다.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가 좋게 나왔더라도 각 이론적 모형의 경로를 확인하여 유의하지 않는 경로가 나왔을 때, 최종구조모형 선택을 위해 이론적 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변수 및 경로의 삭제 및 변경을 수행하여 모형의 수정을 거쳤다. 이 후 이론적 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통해 최종 구조모형을 선정하였다.

<표Ⅲ-11> 적합지수 해석 기준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절대적합지수	χ^2	χ^2 검증 유의확률
	GFI(Goodness of Fit Index)	≥ 0.9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0.85
	S-RMR	≤ 0.08
증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0.90
	IFI(Incremental Fit Index)	≥ 0.90
	TLI(Tucker & Lewis Index)	≥ 0.90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간명적합지수	PNFI(Parsimony NFI)	$\geq 0.50, 0.60$
	PCFI(Parsimony CFI)	$\geq 0.50, 0.60$
	PRATIO(Parsimony Ratio)	$\geq 0.50, 0.60$
기타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eq .05$: 매우 좋음 $\leq .08$: 좋은 편임 $\leq .10$: 적합

최종 구조모형을 확정하고,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을 통해 모형 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다중상관자승을 산출하여 모형 내 내생잠재변인이 모형을 통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중상관자승 값의 범위는 0~1이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의 관계에

서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있는 다중매개모델이다. AMOS에서는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있을 때 총 간접효과와 합이 산출된다. 하지만 각각의 매개변인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매개변인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팬텀변인 분석은 별도의 경로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파악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15). 팬텀변인은 구조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의 변인과 경로를 만들어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팬텀변인을 활용한 다중매개효과 검증은 두 개 이상의 직접효과의 곱으로 구성된 간접효과를 팬텀변인이란 가상의 변인을 생성하여 하나의 경로계수로 구성한 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배병렬, 2011).

팬텀변인분석의 절차는 구조모형에서 다중매개가 되는 매개경로에 대해 각 개별 팬텀변인과 경로를 생성하고, 경로별 직접효과의 곱의 형태인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인 팬텀변인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도 분석은 95%신뢰도 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유의한지 판단하였다. 0을 포함하면 유의하지 않는 경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경로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자료점검

가.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는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잠재변인으로 각 1개에서 4개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VI-1>과 같다.

<표 VI -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구분		응답가능 범위	평균	표준편차	5점환산 평균
진로포부	진로포부	6-30	22.62	4.061	3.77
부모진로지지	도구적조력	7-35	20.82	5.221	2.90
	진로관련모델링	7-35	25.48	6.682	3.64
	언어적격려	4-20	15.76	2.943	3.94
	정서적지지	7-35	24.75	5.656	3.49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7-35	24.72	5.518	3.53
	정보적지지	7-35	24.50	5.735	3.46
	평가적지지	7-35	25.57	5.501	3.69
	도구적지지	7-35	23.76	5.058	2.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설정	8-40	31.08	5.919	3.88
	미래계획	4-20	13.29	3.545	3.29
	직업정보	3-15	10.62	2.791	3.54
	문제해결	4-20	10.75	2.310	3.58
진로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7-35	28.60	5.205	4.08
	외재적 결과기대	5-25	19.48	4.084	3.89

주) n=469

진로포부의 5점 환산 평균은 3.77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의 관찰변인은 도구적조력, 진로관련모델링, 언어적격려, 정서적 지지로 그 값이 증가할수록 부모진로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찰변인의 5점 환산 평균은 언어적격려 3.94, 진로관련모델링 3.64, 정서적지지 3.49, 도구적조력 2.90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교사지지의 5점 환산 평균은 평가적지지 3.69, 정서적지지 3.53, 정보적지지 3.69, 도구적지지 2.94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5점 환산 평균은 목표설정 3.88, 문제해결 3.58, 직업정보 3.54, 미래계획 3.29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진로결과기대의 5점 환산평균은 내재적 결과기대 4.08, 외재적 결과기대 3.89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나.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분석

구조방정식의 모수 추정법은 다변량 정규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인들 간의 선형적 결합의 정규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구조방정식의 관찰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이 확보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VI-2>와 같다. 단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산을 기준으로 왜도와 첨도지표를 통해 정규성을 판단한다. 왜도 지표는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 | 3 | 이내, 첨도 | 8.0 | 이내의 경우에는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변인들의 왜도 값의 절대값 지수는 .108~.598로 단변량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첨도값의 절대지수는 .033~.732로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Ⅶ-2〉 관찰변인의 단변량 정규성 분석

구분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진로포부	진로포부	12	30	-.224	-.578
부모진로지지	도구적조력	7	35	.137	.033
	진로관련모델링	7	35	-.279	-.732
	언어적격려	7	20	-.312	-.641
	정서적지지	7	35	-.241	-.493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9	35	.213	-.499
	정보적지지	7	35	.086	-.215
	평가적지지	9	35	.108	-.601
	도구적지지	7	35	.352	-.46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설정	8	40	-.215	-.726
	미래계획	4	20	.122	-.713
	직업정보	3	15	-.224	-.693
	문제해결	4	20	.111	-.627
진로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9	35	-.598	-.185
	외재적 결과기대	5	25	-.346	-.505

다. 관찰변인간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은 <표Ⅳ-3>과 같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공분산행렬과 상관행렬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모형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변량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는 최소 .186(도구적지지-언어적격려)이상 최대 .783(평가적지지-정서적지지)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VI-3〉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

구분	관찰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모 진로 지지	도구적조력	1														
	언어적격려	.359**	1													
	진로관련 모델링	.338**	.386**	1												
	정서적지지	.588**	.515**	.433**	1											
교사 지지	정서적지지	.393**	.363**	.316**	.433**	1										
	정보적지지	.368**	.246**	.262**	.405**	.727**	1									
	평가적지지	.283**	.340**	.302**	.382**	.783**	.716**	1								
	도구적지지	.277**	.186**	.198**	.266**	.533**	.536**	.550**	1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감	목표설정	.340**	.435**	.348**	.465**	.468**	.380**	.476**	.279**	1						
	미래계획	.374**	.314**	.262**	.458**	.453**	.443**	.449**	.369**	.621**	1					
	직업정보	.427**	.381**	.351**	.495**	.453**	.372**	.395**	.363**	.693**	.604**	1				
	문제해결	.258**	.311**	.32**	.361**	.382**	.344**	.422**	.319**	.541**	.517**	.607**	1			
진로 결과 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304**	.400**	.354**	.471**	.456**	.390**	.479**	.304**	.651**	.572**	.559**	.573**	1		
	외재적 결과기대	.302**	.359**	.325**	.467**	.423**	.391**	.432**	.316**	.566**	.567**	.515**	.504**	.784**	1	
진로 포부	진로포부	.293**	.365**	.312**	.406**	.357**	.311**	.395**	.245**	.496**	.486**	.474**	.466**	.533**	.515**	1

주)**p<.01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가.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은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과 표본상관행렬을 비교하여 표본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변인 중 진로포부는 단일지표로 사용하여, 단일지표 측정오차는 $\{(1 - \text{신뢰도}) \times \text{관찰변인의 분산}\}$ 으로 관찰변인의 분산 중 오차분산 비율(1-신뢰도)과 해당관찰변인의 측정오차의 추정량 $\{(1 - \text{신뢰도}) \times \text{관찰변인의 분산}\}$ 을 구하여 값을 고정하여 사용하였다(배병렬, 2014; 문수백, 2013).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적합도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하는 절대적합지수, 기본모형에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 모형의 간명성을 확인하는 간명적합지수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인 지수는 총 10개로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NFIP, PCFI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GFI는 .941, AGFI는 .912, RMSEA는 .057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증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NFI는 .958, TLI는 .967, TLI는 .967, CFI는 .974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간명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는 .771, PNFIP는 .739, PCFI는 .752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분석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 VI-4〉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적합여부
절대 적합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geq .90$.941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geq .90$.912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eq .08$.057	적합
충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geq .90$.958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geq .90$.974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geq .90$.967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geq .90$.974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geq .50$.771	적합
	PNFI(Parsimony NFI)	$\geq .50$.739	적합
	PCFI(Parsimony CFI)	$\geq .50$.752	적합

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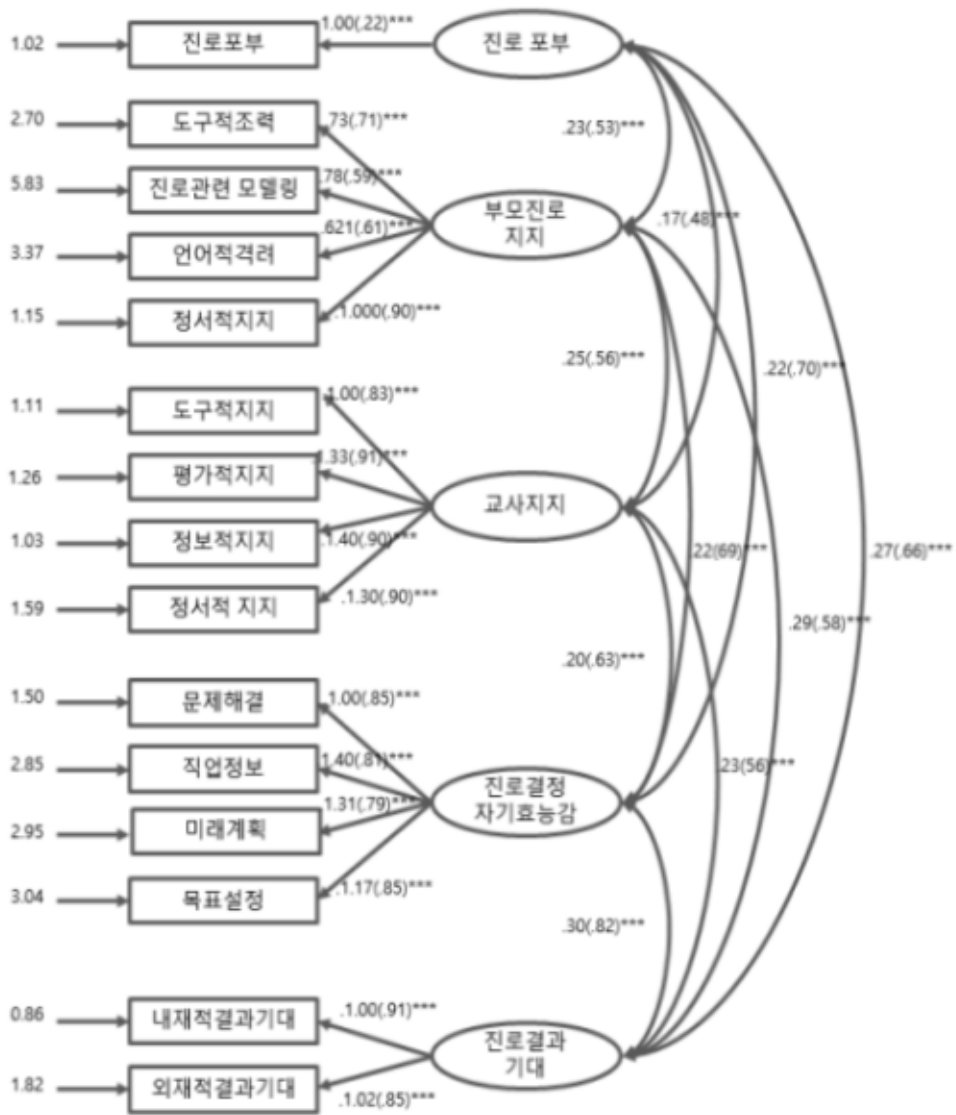
구조방정식모형은 다수의 관찰변인이 1개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모형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관찰변인이 1개의 잠재변인을 신뢰성있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조방정식에서는 복잡한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영향력 파악을 위해 즉, 측정모형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 모형(제안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지 보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각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요인부하량 및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수렴타당도는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

하량 .50-.95 구간 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Bagozzi & Yi, 1991). 통계적 검증은 기각률(C.R)값이 1.96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경우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부하량이 .599~ .919이며, 기각률이 1.96보다 모두 유의하여 제시된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측정모형에서 모든 C.R. 값이 12.271~23.048로 2.58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5〉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C.R
부모진로지지	도구적조력	.730	.717	.044	13.512
	진로관련모델링	.780	.599	.058	13.512
	언어적격려	.615	.613	.044	13.893
	정서적지지	1	.907	-	-
교사지지	정서적지지	1.305	.906	.046	25.448
	정보적지지	1.409	.901	.049	25.227
	평가적지지	1.334	.913	.046	25.768
	도구적지지	1	.833	-	-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목표설정	1.173	.851	.070	16.836
	미래계획	1.317	.798	.083	15.902
	직업정보	1.405	.811	.087	16.136
	문제해결	1	.697	-	-
진로결과기대	내재적 결과기대	1	.919	-	-
	외재적 결과기대	1.019	.853	.044	23.164



주1) 진로포부의 경우 단일지표 사용으로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을 '(1-신뢰도)X관찰변인의 분산'으로 구한 뒤 값을 지정하여 활용

주2) ***p<0.001

주3) 계수는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로 표기

[그림 IV-1] 측정모형의 확인적요인 분석 결과

변별타당도란 2개 이상의 잠재변인 사이에서 각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구별하여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잠재변인들 간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변별타당도는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80-1.00인 경우 강한 상관관계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별타당도를 지닌다고 판단한다(Rea & Parker, 2005).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Ⅶ-6> 측정모형의 잠재변인간 추정된 상관계수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진로포부	↔	부모진로지지	0.538
진로포부	↔	교사지지	0.485
진로포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690
진로포부	↔	진로결과기대	0.667
부모진로지지	↔	교사지지	0.568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662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과기대	0.584
교사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627
교사지지	↔	진로결과기대	0.56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과기대	0.820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간의 추정된 상관계수는 0.485-0.690으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 일정수준의 변별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경우 0.820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최종 구조모형 선정

가. 이론적 연구모형 검증

최종 구조모형 선정을 위해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관찰변인을 바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지수(GFI, AGFI, SRMR), 증분적합지수(NFI, IFI, TLI, CFI), 간명적합지수(PRATIO, PNFI, PCFI)와 기타지수(RMSEA)까지 총 11개 지수이다. 본 연구의 구조(이론)모형 적합도 검증결과는 다음<표Ⅵ-7>과 같다.

<표Ⅵ-7>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적합여부
절대 적합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geq .90$.941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geq .90$.912	적합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leq .05$.031	적합
증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geq .90$.958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geq .90$.974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geq .90$.967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geq .90$.974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geq .50$.771	적합
	PNFI(Parsimony NFI)	$\geq .50$.739	적합
	PCFI(Parsimony CFI)	$\geq .50$.752	적합
기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leq .10$	0.057	적합

구조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확인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값은 GFI는

.941, AGFI는 .912, SRMR .031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NFI는 .958, TLI는 .967, CFI는 .974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간명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는 .771, PNFI는 .739, PCFI는 .752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기타지수인 RMSEA도 .05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모형 수정 및 최종 구조모형 선정

최종 구조모형 선정은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실제 연구가설의 결과와 적합한 정도인지 파악 및 평가하여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최종 구조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결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변수의 삭제 및 경로의 변경을 수행하는 단계를 통해 모형 수정을 하고 이론적 구조모형과 수정한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종 구조모형을 선정한다.

그러나 MacCallum, Roznowski와 Necowitz(1992)는 연구자가 제안한 이론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일 경우 적합도 지수를 더 개선시키고자 모형 수정을 수행 하는 것은 다른 표본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들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모형다듬기를 활용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 간 경로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진로지지→진로포부’, ‘교사지지→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진로결과기대’, ‘교사지지→진로결과기대’의 4가지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간명성지수를 높이면서, 기타 적합도 지수를 제고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4가지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만들었다. 이에 모형 수정을 통한 이론적 연구모형(제안모형)과 적합도 비교분석 결과는 <표Ⅳ-8>와 같다.

<표Ⅵ-8> 모형 간 적합도 비교

구분	허용치	제안모형	경쟁모형
χ^2		202.530	209.970
$\Delta \chi^2$ (Δdf 4 기준)	< 9.48	-	7.44
df		81	85
RMSEA	$\leq .10$.057	.056
GFI(Goodness of Fit Index)	$\geq .90$.941	.94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leq .05$.912	.915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geq .90$.031	.033
NFI(Normed Fit Index)	$\geq .90$.958	.956
IFI(Incremental Fit Index)	$\geq .90$.974	.974
TLI(Tucker & Lewis Index)	$\geq .90$.967	.967
CFI(Comparative Fit Index)	$\geq .50$.974	.974
PRATIO(Parsimony Ratio)	$\geq .50$.771	.810
PNFI(Parsimony NFI)	$\geq .50$.739	.774
PCFI(Parsimony CFI)	$\leq .10$.752	.788

주1) 경쟁모형 : ‘부모진로지지→진로포부, 교사지지→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진로결과 기대, 교사지지→진로결과기대’ 경로 제거

이론적 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11개 지표 모두 적합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카이제곱 통계치 분석결과, 변화량이 7.44(df=4)로 카이자승 통계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도 지수에 큰 변화가 없어 두 모형 모두 최종 구

조모형으로 채택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가설 중 하나이며,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진로포부와 상관관계가 부모진로지지가 0.538, 교사지지가 0.485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며,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는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각 0.584, 0.563($p<0.001$)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갖으며,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을 기각하고,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을 최종구조모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IV-2] 참조).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그림 IV-2] 변인 간 관계분석을 위한 최종 구조모형

다. 최종 경로모형의 다중상관자승 및 경로계수 분석

최종 경로모형이 선정됨에 따라 구조모형 내에 잠재변인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구조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내생잠재변인이 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 나타내주며,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같은 의미의 설명력을 나타낸다(허준, 2014). 구조모형 내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은 다음<표 IV-9>과 같다.

<표 Ⅶ-9>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변인	다중상관자승
진로포부	.516
진로결과기대	.67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31

내생잠재변인의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진로포부의 경우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약 51.6%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과기대는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약 67.8% 설명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에 의해 약 53.1%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지지와 교사지지는 외생잠재변인으로써 다중상관자승이 제시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잠재변인으로 설정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독립변인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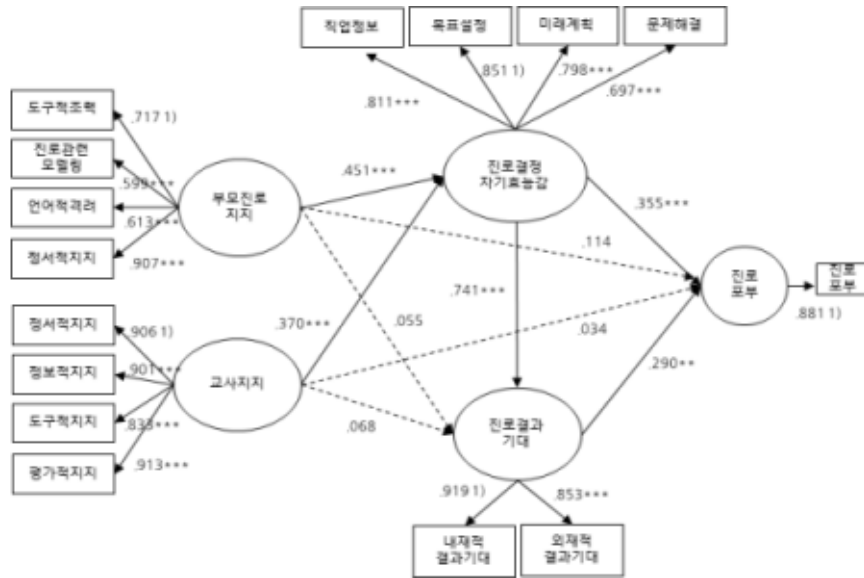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여 연구가설1을 검증한 이후에,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의 비표준화경로계수(B), 표준화경로계수(β), S.E(표준오차), C.R(Critical

Ratio) 값을 산출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9개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5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구조모형의 표준화 모수치 추정결과는 각각 다음의 <표 IV-10>과 [그림 IV-3]과 같다.

<표 VI-10>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S.E)	C.R (Critical Ratio)
부모진로지지	→	진로포부	.127	.114	0.074	1.714
교사지지	→	진로포부	.029	.034	0.050	0.57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336	.355	0.102	3.298***
진로결과기대	→	진로포부	.253	.290	0.082	3.091**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31	.451	0.066	8.113***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과기대	.070	.055	0.069	1.020
교사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27	.370	0.044	7.350***
교사지지	→	진로결과기대	.065	.068	0.046	1.40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과기대	0.804	.741	0.068	11.826***

주1) **p<0.01, ***p<0.001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증 불가 주2) **p<0.01, ***p<0.001
주3) 계수는 표준화계수로 표기

[그림 IV-3] 최종 구조모형 내 변인 간 관계 검증 결과

4.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직접효과

구조모형에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과기대,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적모형 내에서 진로포부와 각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2-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모형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진로지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0.114이며,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설 2-1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연구가설 2-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모형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교사지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0.034,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설 2-2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

연구가설 2-3.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모형 내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0.355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포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가설 2-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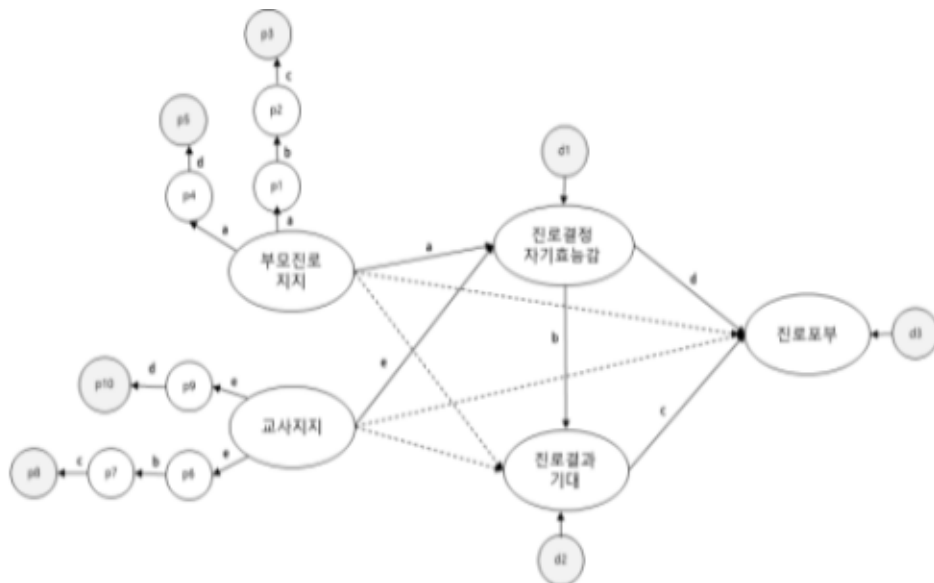
구조모형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진로결과기대의 표준화경로계수(β)는 0.290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2-4를 채택하였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과기대가 높아질수록 진로포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부모진로지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분석을 통해서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후, 이 연구의 가설 3, 4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사용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였다. AMOS에서는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있을 때 총 간접효과를 나누어 각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식과 팬텀변인을 활용한 다중매개효과 검증방법이 있다. 각 간접효과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총 간접효과의 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 매개변인의 간접효과와 유의성은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활용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팬텀변인을 활용한 방법은 별도의 가상변인으로 경로모형을 새로 만들어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두 개 이상의 직접효과의 곱을 하나의 팬텀변인을 통해 경로계수로 구성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배병렬, 2014).

이 연구에서의 부모진로지지 및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매개한 개별간접효과 분석을 위해 팬텀

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그림Ⅳ-4]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인을 만들어 다중매개경로에 대해 단일계수로 표현된 팬텀매개변인으로 가상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의 경로는 ‘p3’ 팬텀변인으로 표시하고,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포부’의 경로는 ‘p5’로 표시하고, 교사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의 경로는 ‘p8’의 팬텀변인으로 표시하고, ‘교사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진로포부’의 경로는 ‘p10’로 표시하였다. 이후 단일계수로 표시된 간접효과의 비표준화추정치(p3, p5, p8, p10)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95% 신뢰구간에서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Ⅳ-4]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분석모형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계산되고, 각 경로의 유의도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팬텀변수를 통한 매개효과와 이중매개 분석결과 연구가설3의 부모진

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경로는 p3, p5의 팬텀변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p3, p5 각 경로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는 다음<표Ⅳ-11>과 같다.

<표 Ⅵ-11> 부모진로지지, 진로포부 관계에서 매개효과 분석결과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구분	비표준화추정치	부트스트랩 추정p값	95%신뢰구간	
			LB	UB
3-1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179***	.005	.054 .327
3-2	부모진로지지→진로결과기대→ 진로포부	-	-	- -
3-3	부모진로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	.108**	.014	.027 .208

주1) *p<0.05, **p<0.01, ***p<0.001

주2)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연구가설 3-1.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B)는 .179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단일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2.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매개효과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 대한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3-2를 기각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는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가설 3-3.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이중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B)는 .108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즉, 일반계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교사지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판텀변수를 통한 매개효과와 이중매개 분석결과 연구가설 4의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의 경로

는 p8, p10의 팬텀변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p8, p10 각 경로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Ⅳ-12>와 같다.

<표Ⅵ-12> 교사지지,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분석결과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구분	비표준화 추정치	부트스트랩 추정p값	95%신뢰구간	
			LB	UB
4-1	교사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110**	.005	.033 .200
4-2	교사지지→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	-	-	- -
4-2	교사지지→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과기대→진로포부	.066***	.014	.015 .132

주1) *p<0.05, **p<0.01, ***p<0.001

주2) LB: Lower Bound, UB: Upper Bound

연구가설 4-1.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B)는 .11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단일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4-2.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매개효과는 교사지지에서 진로결과기대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가설 4-2를 기각하였다.

연구가설 4-3.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가 갖는 이중매개효과의 비표준화계수(B)는 .066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3을 채택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진로포부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계열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목표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가 다르다는 선행연구에 따라(김양분, 김위정, 임현정, 남궁지영, 2012; 박찬열, 2009; 이병임, 2012),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제공되는 환경적 변인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히고, 이론적 구조관계를 밝히는데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은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 실증자료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적 구조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 선정을 위해 모형 다듬기를 통해 유의미한 경로로 나타나지 않은 4개의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과의 비교에서 이론적 연구모형과 적합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부모와 교사차원의 지지는 중요한 지지원이며, 진로포부와 부모와 교사지지와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은 주요 연구가설 중 하나이다. 또한 부모와 교사지지와 진로결과기대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가설 중 하나이기에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와 진로결과기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기각하고 이론적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발달을 위해서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 변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직접효과

가)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에 대한 직접효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진로포부의 발달을 설명하는 진로포부발달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같은 의미있는 타자의 지지는 진로선택과 목표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미연, 2011; 정미예, 조남근, 2011). Flores와 O' Brien(2002)의 연구 역시 부모진로지지가 개인의 진로포부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혀냈고, 이외에도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진로지지가 청소년들의 높은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상문, 2018; 최수미, 2012, 2013; 최수미, 강유림, 2013; 최재혁, 홍혜영, 2016).

하지만 선행연구는 진로포부 연구와 관련된 대상으로, 계열, 성별의 차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청소년의 진로포부와 부모지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최수미(2013)가 부산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라 직접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인다. 즉 성별의 차이에 따라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효과를 미쳤던 결과와 달리 남·여학생 모두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해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다른 매커니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계열별, 성별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관계에 대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도 시사한다.

나)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에 대한 직접효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와 교사지지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신효정, 최현주(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포부의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 질에 따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유소영(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진로포부에 미치는 교사지지는 학교의 지원 여건(교사 당 학생배치 비율, 면대면 상담진행 내용, 교사의 상담역량 및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미예, 조남근(2011), 유소영(2013)의 선행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며, 김정주, 송병국(2011), 정우현(198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진로포부 발달이론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 부모 외에 의미있는 타인의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정적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심리요인 중 교사영향은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 있다고 보고된다(강경찬, 1996; 김경주, 송병국, 2011; 정우현, 1988). 이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해 교사지지가 진로포부와 상관관계가 높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다른 매커니즘이 있음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에 대한 직접효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연구에서 김경주, 송병국(2011), 김명희, 최웅용(2014), 최재혁, 홍혜영(2016)의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고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Lent 외(2000)의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지적 변인이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하려고 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자신이 갖는 신념이나, 목표, 실현가능성인 진로포부를 높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에 대한 직접효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김명희, 최응용(2014), 이정애, 최응용(2011), 박외자(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과기대가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진로결과기대를 통해 목표가 생기면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고, 목표를 조정하면서 스스로 진로결과기대를 조정하게 된다. 진로결과기대는 진로에 관련한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 분야에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인 진로결과기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로 세개의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 중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과기대 → 진로포부’ 경로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매개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예진희, 2017; 최수미, 2012, 2013; 최수미, 강유림, 2013).

둘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는 순차적으로 이중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계진아, 2017, 김명희, 최웅용, 2013; 최수미, 2012, 2013).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경로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경로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지연, 양난미(2007),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사회적지지가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목표(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과기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과 자녀 진로교육을 위해 어떠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논의점을 제공한다.

자녀의 장기적인 진로발달과 진로관련 결정적 선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타인은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Brien, 1992).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정서적인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기에, 가족관계가 아동기부터 성인까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을 위해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목표 지향적인 진로관련 행동을 모델이 되어주고,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부모의 일방적 권유나 제안이 아닌 자녀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상호 발전적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모의 진로지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관련한 목표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진로와 준비과정을 통해 결과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평가적, 도구적, 진로모델링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로결과기대 수준을 높이는 순차적 환경이 제공되어야함을 시사한다.

3) 진로포부와 교사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 기대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로 세개의 경로를 제시하였다. ‘교사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교사지지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결과기대 → 진로포부’ 2개의 경로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의 결과(김경주, 송병국, 2011; 유소영, 2013; 정우현, 1988)를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맥락변인은 목표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지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우현(1988)은 교사의 격려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주, 송병국(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지지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는 순차적으로 이중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대학생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지연, 양난미(2007), 전미리(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두변인을 매개로 목표(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같은 결과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맥락변인은 목표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로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경로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닌 사회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이 학교에 형성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며, 자아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김광수, 2002).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과 원조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자원을 교사지지를 통해 먼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사의 지지는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로결과기대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의 매커니즘이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의 구조적 관계가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효한지 검증하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적합한 이론적인 모형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7년에 조사된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193,562명이다. 표본은 층화군집비율표집으로 학교 소재지 및 성별에 따라 총 469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각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하고 본 조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진로포부의 측정도구는 O'Brien(1992)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진로포부척도(CAS: The Career Aspiration Scale)를 최수옥(200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일치도계수가 낮은 문항으로 역문항 채점문항인 4개의 문항이 모두 .04이하의 상관을 나타내 4개의 역채점 문항을 제거하고,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지표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792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부모진로지지 측정도구는 Turner(2003)가 개발하고 김수리(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내적일치도계수가 낮은 2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총 25개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신뢰도는 .92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교사지지 측정도구는 박지민(2000)이 Norris와 Murrell의 루이즈빌 사회적지지 척도와 Barrera, Gottlieb, MOS(Medical Outcomes Study)팀 및 박지원(1985), 한미현(1996) 등이 각각 제작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하고, 윤여근(2002)이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사회적지지 검사 문항 중 교사지지 28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지지의 하위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지지 전체신뢰도는 .97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하고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SF)를 김경주(2011)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은 목표설정, 미래계획, 직업정보, 문제해결 5개의 영역이며, 총 19개의 문항이 선정 및 구성되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신뢰도는 .943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진로결과기대 측정도구는 Lent 외(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

으로 공학관련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결과기대를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김진관(2014)의 연구에서 박용진(2019)이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문항은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재적 결과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과기대의 전체신뢰도는 .94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27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5개교, 비수도권 6개교에 배포된 500부 중 49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8.4%).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이상치를 제외한 469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 93.9%).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 for Window와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설정하였던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성 검증과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p < .05$ 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진로포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 값은 GFI는 .941, AGFI는 .912, SRMR .031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NFI는 .958, TLI는 .967, CFI는 .974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간명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는 .771, PNFI는 .739, PCFI는 .752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기타지수인 RMSEA도 .05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 혹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은 이론적 모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beta = .336$), 진로결과기대($\beta = .253$)는 진로포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B = .179$)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B = .108$)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이 인식한 교사지지와 진로포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B = .110$)을 매개로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B = .066$)를 이중매개로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의 구조모형은 국내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이를 통해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과기대는 진로포부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부모나 교사지지는 중요한 선행변인이지만 진로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사회인지적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이 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포부에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가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및 매개연구를 통해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부모지지), 교사지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진로포부와 부모와 교사의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아닌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를 매개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있어 고등학교 계열의 구분 없이 수행한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영향 경로 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부모진로지지가나 교사지지가 다른 계열과 차이가 있는지, 성별 및 환경적 제약에 따른 차이가 나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주는 방법, 진로모델링을 제시하는 방법, 정서적 지지를 하는 방법이 진로포부 발달에 직접영향을 주기보다 진로를 결정하는 자녀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매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향후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학부모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자료 활용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진로지지라는 과업측면에서 자녀의 진로포부발달에 주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서

적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의 직업 및 직장 경험을 통한 진로모델링을 통해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과정은 자녀의 진로탐색 기회로 연결되어 자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진로와 관련된 기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순차적 진로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시기는 현실적인 요소로 진로포부 발달이 제한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부모의 진로 관련한 지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변화시킬 수 요소이다. 부모와 자녀가 진로관련 대화시간의 질을 높이고, 자녀와 함께 진로를 찾아가려는 노력은 자녀의 진로포부 발달을 돕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교사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완전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교사의 지지가 진로포부 발달에 어떤 구조적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는 교사의 지지가 진로포부 발달에 있어 영향을 주는 변인간의 순차적 경로가 있음을 나타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생활전반에서의 관계, 세밀한 상담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이 제공되면,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향상으로 연결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자신감 상승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게 하며, 이는 진로포부를 발달시키는 결과로 연결된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진로포부 발달을 돕기 위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에 관심을 갖고, 성적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도움 필요정도를 파악하고, 담당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 탐색활동을 참여하도록 돕는 동기부여의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 발달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차이가 많지 않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 설문지 조사기간이 학기 초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계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 학년 전체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3. 제언

가. 후속연구 제언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 후 연구
에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집단의 특징으
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주는 학교소재지, 성별, 학업성적, 사
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하여 농어촌 및 시외지역 학생, 학업 성적이 우수
하지 않은 학생,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대학 비진학 학생을 비교 연구하
여 집단별로 진로포부 발달의 경로 차이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진로지원 활동과 관련된 내실 있
는 진로지도를 위해 진로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의 상담 및 학생지도
역량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도구 중 교사지지 도구를 활용하였으나, 일반
계 고등학생 교사의 진로지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미흡
하며,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교사 진로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적합한 진로포부에 대한 측정도구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
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Brien(1992)
측정도구는 10문항으로 승진, 리더십, 전문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을 측정하며, 4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역채점 문항의 내용이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소 다르게 이해 할 수 있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승진에 관한 문항인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을 통해 승진하고 싶다’ 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의사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진로포부를 국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고, 진로포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관계 구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모형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였으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 수준, 경제적 환경,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모형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생에 적합한 진로포부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과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학업성취,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등 결과변인까지의 관계가 확장하여 구명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에 적합한 진로 및 학습의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모형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의 차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전공 및 직장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진로포부 발달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진로포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실천적 제언

첫째, 이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중 일부분이 아닌,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바라보고,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포부에 대한 이론적 모형구축을 하는데 있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장기적인 진로포부를 발달에 있어 진로교육현장의 교육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위해 본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교사교육, 학교차원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진로포부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진단하고 현장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부모, 교사의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과기대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인과적 관계가 진로포부 발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교사를 교육하는 지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높은 진로포부를 갖는 것이 좋다고 하여, 고소득 직종의 전문 직업인과의 인터뷰, 높은 목표를 갖게 하고자 명성 있는 대학 진학탐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발달 되었을 때 유의미한 진로지원활동이 될 수 있는 반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결정을 잘 해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거나, 적합한 진로탐색에 대한 단계 없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포부 발달로 연계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학생의 일상에서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모와 교사와 학의 관계의 질은 학생 스스로 진로계획과 목표를 잘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진로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진학만이 목적이 되는 입시풍토와 대학 입학 후 전공 불만족 등을 통한 이

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 직업인이 되는데 포부를 갖는데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제공되는 환경적 지지변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완전한 매커니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성공에 대한 성취나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로포부가 높은 학생도 있지만, 진로포부 발달에 진로장벽으로 환경적 제약을 받는 집단도 존재한다. 즉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으로 진로선택을 하거나, 학업 성적이 부진하여 비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직업정보나 진로탐색의 경험이 부족한 농어촌 및 비도시지역 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포부 발달의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차원에서 진로포부 발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생의 진로포부 발달을 위해 학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담임교사와 진로 상담교사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의 학생이 체계적 진로탐색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탐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를 독려하고 진로교육의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찬. (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기도 교육청. (2016). **2016년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 직업교육정책연구 보고서**. 수원 : 경기도교육청
- 고미나. (2011). **대학생의 내,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윤정. (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9(1), 127-141.
- 교육부. (2016a).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2016. 4. 26).
- 교육부. (2016b).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세종: 교육부.
- 길혜지, 윤지윤. (2015). **고등학생 유형 결정요인 탐색: 진로성숙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4(6), 73-91.
- 김광수.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현황과 지도방안**. **교육논총**, 17(1), 1-15
- 김경주.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 (2009). 가정유형과 학업성적 및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 진로포부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 6(1)113-135.
- 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115.
- 김경년. (2011). 고교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적 선발이 학생들의 직업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29(4), 121-145.
- 김국현. (2016).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학생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엽.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대연, 강경찬. (1996). 고교생의 진로성숙 진로포부 결정요인 탐색. **교육연구**, 12. 5-42.
-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71-91.
- 김명희, 최웅용. (2014).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1), 83-107.
- 김봉환 외(2013). **진로교육개론**. 서울: 사회평론.
- 김상문.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역량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행동연구**, (23), 31-51.

- 김성희, 박명심. (2006). 고등학생용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7(2), 385-397.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2), 393-407.
- 김수현. (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분, 김위정, 임현정, 남궁지영. (2012). 학교다양화에 따른 고교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은. (2014). 일반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진로의사결정 관여와 부모 및 자녀 특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민. (2017). 통합사회인지진로이론 관점에서 사회계층차별에 대한 인식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관. (2014).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 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장운옥. (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 김판수.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학습경험의 매개효과. **심리행동연구**, 5(2), 111-145.

- 계진아. (2017). **한국형 진로포부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부현, 오영훈. (2017).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현장 경험연구. **교육문화연구**, 23(6(A)), 341-364.
- 박나실. (2017). 일반고 진로교육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교육목표와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5(4), 151-176.
- 박미연. (2011). **부모지지,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두, 이기학. (2008). 사회적지지, 자존감, 진로포부 간의 성차모형 검증: 개인자존감과 집단 자존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3(3), 263-282.
- 박용진.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및 그것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민. (2000).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및 감성지능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열. (2009). 2010학년도 신입생의 대학진학에 관한 계열별 분석.
부산여자대학 논문집. 31, 279-299
- 박희현, 이지연, 장진이. (2013).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가 지각한 학습관여에
따른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포부. **상담학연구**, 14(1), 523-538.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병렬. (2014). **AMOS 21.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신상인. (2015).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진로포부, 진로타협,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
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효정, 최현주. (2013).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관련 변인 간의
영향. **발달지원연구**, 2(2), 95-114.
- 안영은, 박세진. (2017). 고교다양화정책에 따른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삶의질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1), 165-187.
- 양난미. (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난미. (2008). 진로상담: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2), 537-550.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유소영. (2013).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홍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 (2013). 2013 년 12월: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 윤여근. (2002).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중. (2016). 교사의 관심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6(1), 51-73.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임. (2012).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의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2(3), 133-155.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논문집, 1(3), 195-242.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 정혜원. (2015).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2), 209-235.
- 이정연. (2013). 자기개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전망의
매개효과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애, 최웅용. (2011).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포부 간의
구조관계모형. **진로교육연구**, 24(4), 95-109.
- 이지연, 양난미. (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선택모형 검증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와 목표의 관계에서. **사회과학 연구논총**, 27, 75-100.
- 이지연, 윤혜경. (2014). 한국고등학생의 사회인지요인과 학업만족의 관계:
Lent의 학업만족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5), 1957-1977.
-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 이현주. (2005).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몰두와 진로포부에 대한 사회적 관계성,
진로장애인식, 진로장애대처효능감의 역할. **교육학연구**, 43(1), 187-211.
- 이훈영. (2008).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임언. (2005).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예진희. (2017). 부모의지지 및 성취압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아, 이지연. (2014).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변인과 삶의 만족간 구조모형 검증: 통합 사회인지 진로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1023-1046.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 (2017).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미예, 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 전미리. (2017). **사회인지 진로 자기관리모형에 따른 부모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 및 진로탐색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우현. (1988). 고교생의 교육기대 및 직업적 포부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9-70.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민, 김규태. (2013). 논어에 나타난 이상적인 교사 -교사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29, 35-60.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수미. (2012). 부모진로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및 학업성취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발전연구**, 28(2), 27-44.
- 최수미.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의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213-234.

- 최수미, 강유림. (2013).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91-2306.
- 최수옥. (2003).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영향 미치는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순. (2015).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부모지지,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혁, 홍혜영. (2016). 진로포부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9(2), 129-143.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8). **교육통계연보**. 세종 : 통계청.
- 하문선, 김지현, 김봉환. (2014). 후기 청소년 직업포부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 요인. **상담학연구**, 15(4), 1495-1513.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 청소년활동 이슈리포트, 3. 서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허준. (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레 아카데미.
- 홍경희. (2017). **인문계 남자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동아리 활동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황지원. (2013).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격차 변화 추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현정, 백지연. (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24(1), 99-122.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agozzi, R. P., & Yi, Y. (1991).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4), 426-43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 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28(5), 399-410.

- Betz, N. E., K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47.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 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ranston, P., & Leonard, M. M.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experiences of campus micro-inequities and their self-esteem and aspirat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 Creed, P. A., Patton, W., & Prideaux, L. A. (2007). Predicting change over time in career planning and career explor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0(3), 377-392.
- Flores, L. Y. & O'Brien, K. M. (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1), 14-27.
- Forster, E. M. (1997). Teacher Leadership: Professional Right and Responsibility.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9(3), 82-94.
- Gainor, K. A., & Lent, R. W. (1998). Social cognitive expectations and racial identity attitudes in predicting the math choice intentions of Blac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403.

- Ginzberg, E. (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30(7), 491-494.
- Gottfredson, G. D. (2002). Interests, aspirations, self-estimates, and the Self-Directed 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2), 200-208.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79-232.
- Gottfredson, L. S. (2005). Using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71-100.
- Gray, M. P., & O'Brien, K. M. (2007). Advancing the assessment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3), 317-337.
- Gregor, M. A., & O'Brien, K. M. (2016). Understanding career aspirations among young women: Improving instrument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59-572.
- Gushue, G. V., & Whitson, M. L. (2006).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 ethnic ident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pplying

-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2), 112-124.
- Howard, K. A., Carlstrom, A. H., Katz, A. D., Chew, A. Y., Ray, G. C., Laine, L., & Caulum, D. (2011). Career aspirations of youth: Untangling race/ethnicity, SES, and gend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98-109.
- Kim, Y. H., O'Brien, K. M., & Kim, H. (2016). Measuring Career Aspirations Across Cultures: Using the Career Aspiration Scale With Young Korean Wome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73-585.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
- Lim, Y. S.(1990). *Determination of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maturity in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 Ma, P. W. & Yeh, C. J.(2010).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fluencing the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hinese immigrant youth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3),230-245.
- MacCallum, R. C., Roznowski, M., & Necowitz, L. B. (1992). Model modification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problem of capitalization on ch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3), 490.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69.
- O'Brien, K. M. Gray, M. P., Tourajdi, P. P.,& Eigenbrode, S. P.(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an's career choice: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S. Solberg & K.M. O'brien(Chairs),

Promoting woma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ronto, Canada.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O'Brien, K. M., Suzanne Miller Friedman, Linda C. Tipton, and Sonja Geschmay Linn.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a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301-315.

Patrick, H., Ryan, A. M. & Kaplan, A. (2007).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83.

Poole, M. E., Langan-Fox, J., Ciavarella, M., & Omodei, M.(1991). A contextual model of professional attainment: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of career paths of men and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4), 603-624.

Rea, L. M., & Parker, R. A. (2005). *Designing and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Rollins, B. C., & Thomas, D. 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 1. 317-364. New York: The Free Press.
- Schustack, Amy. L. (2001). *Career decision-making in a socio-cultural context: Understanding vocational aspiration and choice among female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Sellers, N., Satcher, J., & Comas, R. (1999). Children's occupational aspirations: Comparisons by gender, gender role identity, and socioeconomic statu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4), 314.
- Sewell, W. H., Hauser, R. M., Blau, P., & Duncan, O. D. (1992).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on the Wisconsin Model*.
- Sikora, J., & Saha, L. J. (2013). Corrosive inequality? Structural determinants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ect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Comparative Perspectives, 8*(3).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2-234). San Francisco: Jossey-Ba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homas, D. A. (1986). *An intra-organizational analysis of black and white patterns of sponsorship and the dynamics of cross-racial mento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 Thompson, M. N., & Dahling, J. J. (2010). Image theory and career aspirations: Indirect and interactive effects of status-related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1), 21-29.
- Tur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Ergun, Damla.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6, 83-94.
- Wahl, K. H., & Blackhurst, A. (2000). Factors affecting the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5), 367.
- Wall, J., Covell, K., & Macintyre, P. D.(1999). Implications of social supports for adolescents' education and career aspiration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2), 63-71.

[부록] 본조사 설문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학업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포부는 어떤 진로선택을 하든 자기발전을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의 진로포부가 가정, 학교, 개인의 영향 요소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성껏 응답해 주신 결과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9면이며, 설문지에 응답 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사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및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에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설문에 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조 혜 은
지도교수 정 철 영

[연구자 연락처] 전화: [] / Email: []

1. 다음은 여러분 자신의 **진로포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진로포부는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자신이 갖는 신념이나 목표,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나는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 혹은 사업 분야에서 승진을 위해 <u>에너지를 쏟을 계획은 없다.</u>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로에서 자리가 잡히면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을 통해 승진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교육을 마친 후에는 <u>계속하여 교육받을 필요를</u> 못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업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서 졸업 후에도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직업에서 지도자 위치를 얻는 것이 나에겐 <u>그리 중요하지 않다.</u>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진로지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님이 행동이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학교공부를 잘하면 상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훗날 내가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취업해서 활용할만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숙제할 때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장래 희망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외 활동을 하게끔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금지를 갖게끔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나에게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동료와 만나게 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시는지 이야기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부모님은 내가 직업관련 기술을 배우면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도록 독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부모님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도록 독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내가 졸업 후에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갖도록 독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내가 학교를 잘 마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으면 하시는지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님은 내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내가 취업 후에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울 때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부모님은 내 미래의 직업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잘 할 때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6	부모님과 나는 내가 언젠가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갖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흥겨워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부모님은 내가 가끔 나의 장래 진로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여러분의 교사지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의 생각이나 행동에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들은 내가 실수를 해도 관대하게 감싸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들은 나와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들은 내가 몸이 아프면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들은 내가 속상할 때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들은 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들은 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생님들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선생님들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들은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들은 나를 중요한 학생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선생님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들은 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들은 나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들은 내가 재능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들은 내가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들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선생님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선생님들은 내가 아플 때 양호실에 가도록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선생님들은 내가 필요한 것(예:CD 프로그램 등)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선생님들은 내가 많이 아프다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선생님들은 내가 선생님들 집을 방문하고자 할 때 허락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선생님은 내가 보고 싶은 책(예: 참고서 등)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여러분 자신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직업 분야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전공들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생활방식에 어울리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능력에 알맞은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좌절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직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취업 면접을 볼 경우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관심을 갖는 여러 전공들의 목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계속>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이나 회사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여러 직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성이 많이 근무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처음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장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처음 생각한 직업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결과기대**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진로결과기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며, 진로에 관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읽고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이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만족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희망하는 분야의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진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수도권(서울, 인천) ② 수도권(경기도) ③ 비수도권(광역시)
④ 비수도권(광역시외 지역)

3. 부모님의 학력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 (), 어머니: ()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졸업
④ 대학교 중퇴,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졸업 이상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spiration,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by Hye Eun Cho

Dissertation for the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spiration,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Data was collected through mail surveys from March 27, 2019 to April 17, 2019. A total of 500 questionnaires from 11 general high schools were distributed to take into account both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gions and gender of th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492 people of which 469

were retain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or non-responses.

For the analysis, Windows SPSS 21.0 and AMOS 21.0 statistics program was utiliz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f .05.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otstrapping and analysis for using phantom variable were used.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structural causal model of career aspiration,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was identified as suitable fo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as it was proved to accurately predi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aforementioned variables. Therefore, this structural model is suitable to present the theoretical model of career aspir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aspiration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teacher support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ut not a direct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n developing of career aspiration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both parent and teacher support are vital preliminary variables, but instead of having a direct effect on career aspirations, there is a mechanism at play that influences these aspirations through social cognitive variables. Third, the effects of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on career aspirations were mediated completely b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in this study conducted o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his suggests that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does not lead to career aspiration development unless the student themselves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exploring their own career, whether it be researching information or setting a goal. Fourth, the effects of teacher support on career aspirations were mediated completely b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in this study conducted o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s that teachers establishing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students and discovering what kind of help the student may need concerning their career anxieties, school grades, and overall school life, as well as teachers supporting their students so that they may explore their own career options as much as possible are both very important in regards to improving career aspirations of th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subdivide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by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o conduct a multi-group analysis to study the possible structural differences in career aspiration development.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thorough research by investigating, analyzing and measuring the degree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competency of general high school teachers in regards to student career support activ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and develop a possible and appropriate measurement system to gauge career aspiration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integrated modeling by adding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career aspirations and outcome variables that influence career aspirations to construct a model to cover career and academic aspect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Fifth, a longitudinal analysis is needed on how South Korea's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choice experiences post-graduation influence career aspirations and the course of career aspiration development.

Key words :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spiration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Teacher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tion

Student Number : 2016-28982